무 소 속 대 변 지

제40호 【루계 제2770호】

주체 1 1 2 (2023)년 9월

30 9 토요일 음력 8월 16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H 제 9 차 회 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만수대의사당 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 민이 강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창건 75돐을 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 사로 성대히 경축한 크나 큰 민족적자부심과 애국의 열의를 더욱 승화시켜 뜻 깊은 올해를 공화국의 발 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 을 일층 가속화해나가고있 는 시기에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 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내각, 무력, 법 기관, 금융부문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군 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인 김덕훈 내각총리,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 로동당과 국가, 인민의 모든 승리와 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인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한 당 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제14기 제9차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였다. 의안들이 토의되였다.

권리보장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 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부문 법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총의를 담아 가장 력사적인 결의권을 행사.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 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함에 대하여

일곱째, 조직문제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헌법개정에 대한 첫째 사회주의헌법에 고착시키는것이 가지는 중 의정토의에 방청으로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장에 전기를 펼치시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



사회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대의원이 하 함에 대하여》가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 연설은 진정한 자주강국이며 참다운 인

보고자는 본 최고인민회의가 국가방위 고 말하였다.

포된 이후 지난 1년간 공화국핵무력의 변 다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 혁적인 발전상과 경제문화분야에서 이룩 된 경이적인 성과,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하시였다. 여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팔목할 변화들은 국가핵무력정책법화의 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대하여 현대적인 핵무력건설과 공화국무장 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면서 전체 인민에게 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그들이 국가와 력의 시대적사명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숭고한 경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대한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자주적이며 자 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의를 가지는 올해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 는 법적요구, 공무원대렬을 튼튼히 꾸려 위적인 국가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의 새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 들을 총화하시고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정 당과 국가정책의 옳바른 집행을 보장하 표, 국정의 주인으로서의 중대한 책무를 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_ 책적과업들을 언명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 _ 고 국가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규칙 등 해 _ 다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자각과 열의 적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투쟁을 줄기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 은 년말까지 완강하고도 실속있는 투쟁으 당 법초안의 내용들에 대하여 장별로 해 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였다. 성공에로 확신성있게 이끄시는 조선 국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로써 2023년을 자랑찬 승리로 결속할데 설하였다.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 영 광의 - 상 징 이 시 며 - 위 대 한 - 존 엄 의 - 터 -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를 터쳐올리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 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 지찬동속에 채택되였다.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최고인민회의 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주체의 사회주의강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 에서 차지하는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법적으로 고착시킨 국건설위업의 새로운 승리와 거창한 전진 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 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 데 이어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는 을 힘있게 추동하는 전투적기치, 위대한 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진설의 위대한 정 중대의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된것은 핵무력 혁명문헌으로 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 치헌장인 사회주의헌법에 규제하기 위하 을 포함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여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하게 된다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 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 관개법, 공 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무원법초안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 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이 발 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력사적 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 일치가결되였다. 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하고 공화국의 헌정사에 빛나는 한폐지를 적문제들이 반영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국가핵무력정책법화의 성과에 토 장식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충심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 대표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조선 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수정보충 의 강대무비한 국력의 줄기찬 강화를 위 박이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회의를 안에 반영된데 대하여 밝히면서 이를 본 한 백승의 실천강령, 인민의 리상사회건설 요구에 부응한 과학적인 토대우에 올려 을 촉진하는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감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립각하여 금융부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 격과 환희에 넘쳐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 문 법집행에서의 성과와 경험, 편향과 교

민의 정권인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의정들로 조선민주주의 하도록 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둘째 의정과 셋째 의정, 넷째 의정에 대 원장 강윤석대의원이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령수행을 철저히 담보하며 국가사회제도를

그는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 경제문화 의하였다.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진설 할데 대한 규범,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높 보고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 이하고있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의 이며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서 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 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 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관개법초안.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 원법초안을 본 최고인민회 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 과 셋째 의정, 넷째 의정 에 대한 토론을 김승두대 의원, 허성철대의원, 박명 선대의원, 신관봉대의원, 전승국대의원, 허성호대의 원이 하였다.

회의는 대의원들의 건 설적인 의견들을 심의보충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 택함에 대하여》,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 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공무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 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금융부문 법집

행정형총화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대의원이 보고를 제기하였다.

보고자는 국가금융체계를 현실발전의 훈을 분석총화하였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뜻깊은 금융관리체계를 보완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실속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절실한 실천적

>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당과 국가. 인민앞에 지닌 무거운 책무를 자각하고 백배로 분발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에서 금융부문 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 결정관철을 금융적으로 튼튼히 담보해나 갈 결의들이 표명되였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에 대한 결정이

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 보고자는 해당 법초안들에 우리 당의 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 장애자권리보장정책과 새시대 농촌혁명강 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 로 함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의는 일곱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폐회사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는 비범 위업수행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맞 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농업생산의 지속적 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대성을 만방에 힘있게 펼쳐가는 위대한 당중앙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인민의 대

본사기자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동지, 그리고 최고인민회 의 의장동지!

방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혁명은 간고하고도 완강한 투쟁으로 이룩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자주, 자립, 자위 의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새 로운 전진과 력동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우리의 공화국창건 75돐과 위대한 조국해 방전쟁승리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새로운 고조기, 격 변기를 맞이하고있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해로 됩니다.

당중앙은 우리의 사회주의발전로정과 공화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올해에 전인민적인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2023년을 공화국의 발 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 의 해로 만들데 대하여 호소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당과 혁명의 부름에 언제나 애국충성으로 화 답해온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적투쟁을 과감히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 지고 끊임없이 강화되여가고있습니다. 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을 보장하고 인민생활향상 력과 결행력이 어떤것인가를 명명백백히 증빙하여 달성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에서 실제적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주었습니다. 총궐기해나섬으로써 경제건설의 각 분야에서 뚜렷 한 장성추이를 보이고있습니다.

극심한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풍작을 거두고있 입니다. 는 농업발전의 놀라운 현실과 날마다 몰라보게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 전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의의깊고 사변적인 정치 고 말씀하시였다. 수 있는 밝은 전망을 기약해주고있습니다.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것입니다.

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 회의로 기록되게 되였습니다. 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공화 습니다.



주요당 및 국가정책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헌신 _ 난 년대들과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비상히 다져 _ 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 _ 광고하는 알량한 《선의》와 화려한 유혹에 환상

이것이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수 없게 국가의 __ 이미 지난 세기에 우리 국가의 물리적제거를 국

적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교도화하여 나 단히 중대하고 의의있는 국정토의에서 자기의 결

오늘 우리 국가의 전략적힘, 핵전쟁억제력은 지 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 대를 걸고 앉아있었거나 제국주의자들이 극성스레 을 명기할데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한것은 매우 을 가지고 핵보유로선을 결단하지 못하였더라면, 강력한 방위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철저히 갖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로 그리고 출발을 뗸 간고한 길에서 멈춰서거나 후퇴 국가적인 정치문화행사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 _ 춘 공화국의 위력적실상을 현실로 보여주는 이러한 _ 써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_ 하였더라면 기필코 오래전에 핵참화와 절멸의 재 을 통해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눈부신 성과는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 '성과와 국가핵무력정책을 공화국 최고법으로 담보 '난을 면치 못했을것이며 적들의 횡포무도한 도전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조선의 담 하는 필수불가결한 력사적, 정치적과제가 빛나게 과 압박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가의 존위와 위

올해 우리가 이룩한 성과중에 가장 큰 성과는 -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국가관리와 경제발전, 인 - 다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어떤 대가도 - 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민적시책과 관련된 여러 법령들의 채택과 함께 나 치를 각오와 의지가 전체 인민의 신념으로 굳건한 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 라의 헌법에 새시대 우리 국력의 실상을 반영하는 국가, 실제로 세대를 잇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전 의 수준에로 극대화하고있습니다.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주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한것으로 하여 본 회기는 대미문의 투쟁으로 핵보유의 대업을 성취하고 그 뿐만아니라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군사동 요파업들이 성파적으로 수행되고 우리 식의 위 공화국의 헌정사에 괄목할 폐지를 새긴 력사적인 것을 자주와 정의, 발전의 가장 귀중한 절대적힘 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 _으로 틀어쥔 정부와 인민만이 이러한 기적을 탄생 _ 원적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바로 1년전 전체 조선인민 시킬수 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 를 드러내게 되였으며 이것은 그 무슨 수사적위 국핵전략무력의 신뢰성을 만방에 과시하고 적대 의 총의에 따라 국가핵무력정책을 엄숙히 법화한 화국 국무위원장으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하고 협이나 표상적인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의 위 세력들을 불가극복의 위협과 공포속에 몰아넣었. 이 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신성한 투쟁의 전취물을 헌법으로 고착시키는 대. 협입니다.

의권을 가장 책임적으로 행사하여준 대의원동지들 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 자주적발전을 담보 하는 법적기초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방향 을 밝힌 정치헌장입니다.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영존할 국가최고법에 핵 무력강화정책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것은 현시 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 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 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로 됩니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며 가 장 위험한 전쟁국가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과의 장 기적인 대결속에서 자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였고 핵무력강화정책을 법화한데 대하여서 는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패권열망과 팽창주의적환상실현에 광분 하고있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의해 전지구적범위 에서 《신랭전》 구도가 현실화되고 주권국가들의 존립과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 는 현 상황은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핵무력을 건 설하고 그것을 불가역적인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 리 공화국의 결단이 얼마나 천만지당한가를 립증 해주고있습니다.

만일 우리 공화국이 계속 가증되여온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앞에서 남들의 핵우산에 막연한 기 력을 선양하고 세계의 정의를 선도하는 오늘의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정책이 자랑스러운 현실을 상상조차 할수 없을것입니다.

로. 자신의 손으로 이룩한 결실이고 빛나는 기적 기본법으로 영구화된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 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전쟁까지 강요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했던 미국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정권종 우리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이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말》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전쟁각본을 부단히 개 일떠서는 새 거리, 새 살림집을 비롯하여 나라의 _번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75년에 걸치는 존엄높 _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_ 악하면서 《대한민국》과의 공모밑에 우리 국가에 곳곳에서 일어나고있는 기적적인 변화들은 우리 은 자기의 주권활동사와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이라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루빠》 를 가동시킨데 기초하여 침략적성격이 명백한 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직 자존과 존엄을 생명보 규모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지역

(3 면 으 로 계속)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2면에서 계속)

랭전식사고방식에 쩌들대로 쩌든 미국의 반공화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국군사적도발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오늘날 전 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섭니다.

그렇다고 하여 공화국정부가 단순히 림박한 정 여 강조하시였다. 세악화의 추이만을 분석고찰하고 핵무력강화정책 킨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국가로 존재하는한, 자 게 됩니다. 주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폭제 판단입니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이 행성에 핵무기가 출현하 없는 세계를 소망하였으며 우리 공화국도 1950년 의 조선전쟁때부터 시작된 핵공갈의 직접적인 피 에 들어섰습니다. 해당사자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들 기 위한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거듭하여왔습니다.

고 비핵국가인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장장 수십 년간 지속해 가증시켜왔으며 이로 하여 우리의 사 않으면 안되였으며 지어 국가존립마저 위태로운 비 면서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이 포치한 계획과 야 합니다. 상국면에 직면한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협에는 반드시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철리와 함 가하여야 합니다. 께 일단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여 필연성을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데 나섭니다. 이어 헌법에까지 당당히 명기함으로써 자주적이며 자위적인 국가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의 전위를 개 군인민위원회들은 나라의 경제전반과 해당 지역의 적규률에 복종하며 나라의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동지들이 위대한 척한데 대하여 응당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며 이 경제사업실태를 말끔히 장악하고 변천하는 현실적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억제하도록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위대한 우리 인민의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여야 합니다. 제시한 현 단계의 투쟁강령실현에서 우리 당과 공 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 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여야 합니다. 하여 강조하시였다.

대외정책에 대하여 다시금 구체적으로 명시하시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하루빨리 위대한 현실로 만 역할을 최대로 높이는것이 비할바없이 중요하다고

면서 그에 립각하여 대외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 들어야 합니다.

략적억제력의 확고한 우세를 차지하고 더욱 철저 _ 의 대외전략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혁명에 유_ 히 제압하고 관리하면서 조선반도지역의 안정을 수 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폭 넓고 전망성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반제자주적인 으로 실현해나가는것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나 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 할 중요과업들입니다. 의 헌법화라는 중대의제를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 을 더 잘 보장하고 나라의 중요경제사업들을 안

물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야 합니다. 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 - 건설을 보다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는 법적무기를 도록 하는것입니다.

고 첫 핵참화가 일어난 때로부터 인류는 핵무기가 획을 내세운 당 제8차대회 결정을 완수하기 위한 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적투쟁은 오늘 중대한 시기

속에서도 과감한 계속전진의 기세로 쟁취한 기적 그러나 미제는 단지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는 리 적인 승리와 성과들이 더 큰 승리와 성과로 이어 기간에 달려있습니다.

회주의진설은 막대한 장애와 엄중한 난관을 겪지 _ 투쟁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 _ 홀히 하지 말아야 할 투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 _ 새로운 신심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2023년을 당면과업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관철하 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당적, 행정적, 법적으로 이것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적대세력의 핵 고 훌륭한 실체로 전환시키는데 끊임없는 박차를 이를 위한 투쟁의 도수가 더욱 높아졌다고 하지만 마감까지 더 알찬 성과로써 떳떳이 마무리지어야

도 국가의 영원한 전략자산으로 보존강화하고 누 12개 고지를 비롯한 경제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 지도기관들과 일군들의 사업에 무질서, 무책임성, 과 토대가 확고하며 핵무력진설에 관한 든든한 법 구도, 어떤 경우에도 이를 훼손할수 없게 해야 할 _ 여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실 _ 무관심성을 비롯한 폐단들이 고질적으로 내재하고 _ 적담보까지 마련한 현재의 유리한 정세하에서 그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제일 절박한 과제로 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줍니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과 도, 시, 은 정치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중앙집권 으로 달려있습니다. 력사적인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도를 보다 치밀 통일적이며 강도높은 통제와 투쟁을 계속 드세게 복리를 위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고 박력있게 하여 당과 국가가 결정한 경제발전 벌려나가야 합니다. 목표와 과업들이 철저히 완벽하게 달성되도록 하 우리 혁명의 격동적인 년대들에 발휘되였던 혁 충실히 다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계속 우선적인 - 것을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힘을 넣어야 합니다.

가의 인민적성격으로부터 반드시 결실을 안아와야 여야 합니다.

정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부문법들도 심의채택하 는데 맞게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 고 참된 대의원이라는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됩 문화부문에서 뚜렷하고도 결정적인 개진을 가져와 니다.

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되며 오 마련한것은 귀중한 성과로 되지만 더우기 중요한것 기술발전전략과 계획들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고 나 존엄을 지닌것만큼 조선로동당의 모든 정책들을 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 은 당과 국가의 결정지시가 철저히 관철되여 모든 라의 교육구조,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진교육을 줄 누구보다 잘 알고 자기 당, 자기 국가, 자기 인 다는것이 우리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 부문,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전진비약이 이룩되 수 있게 질적으로 개선하며 가장 인민적인 보건 민을 위하여 한가지라도 더 유익하고 훌륭한 일을 제도의 우월성이 발양되도록 전반적인 보건토대를 할 일념에 항상 충만되여있어야 하며 온넋과 혼심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로 향한 새로운 5개년계 높은 수준에서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확신성있

> 문학예술과 출판보도, 체육부문에서 우리 공화 신적성과들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인 창조방식, 혁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지금까지의 명적인 사업기풍이 차넘치게 하는것을 한시도 소

최근 국가적인 재해방지사업에서 대단히 엄중한 결 할 무거운 책임이 나서고있습니다.

조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적극 추동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나갈데 대 드 특히 우리 당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공화국정부앞에 철저히 관철하는데 농업부문이 더욱 과감히 분기 나서는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 단계에서의 우리 당의 하고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부단히 증대시켜 우리 로 수행해나가는데서 인민의 대표들인 대의원들의

하시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실지 남달리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높은 애국심, 애민정신을 체질화하고 국가발전과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외사업부문에서 당중앙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고있는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리익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해나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인민이 믿고 선출한 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지방건설, 농촌건 고대표라는 이 성스러운 부름에 국가와 이민의 얼 사명을 다해나가자면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원칙, 자주적대를 확고 설을 통이 크게, 힘있게 내밀고 당의 육아보육정 "마나 크나큰 신임과 무게가 실려있는가를 항상 뼈 책, 경공업정책들을 정확히 집행하며 국토의 면 저리게 자각하고 실지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책임 든 국가들과의 런대를 가일층 강화해나갈데 대하 모와 생태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우리 국 에 무한히 충실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

> 국가와 인민을 량심으로, 신념으로, 심장으로 - 굥화국정부는 우리 국격과 국위가 높아지고있 - 받들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민의 진정한 대표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우리 로동당의 손길아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이 결정한 국가과학 래 인민의 대표, 최고주권기관의 대표라는 영예와 을 깡그리 바치는 헌신분투로써 실천적인 성과들 을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이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세계만방에 국위와 국력, 국광을 유감없이 뗠 국의 위상과 발전상, 우리 인민의 애국열의와 혁 치고있는 오늘의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충의 건국이래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국난이 겹쌓인 명적기상을 더욱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자랑찬 혁 지심을 다해 가장 열렬하게, 가장 견결하게, 가 장 뜨겁게 받드는 이민의 진정한 대표. 참된 충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기강을 강하게 세우고 온 복이 된다는것이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고 보람인 유로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제안들을 모두 무시하 지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이제부터의 2년 남짓한 사회에 훌륭한 공산주의적국풍을 수립하며 모든 가를 모두다 다시금 심장속깊이 새기고 또 새겨 야 합니다.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마감지을 시각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앞에는 벅찬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올해의

오늘 우리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인민경제발전 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난것만 보아도 의연히 국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정치적, 물질기술적조건 실천적성과의 여부는 여기 모인 대의원동지들과 모 공화국정부는 모든 기관, 기업소, 공민들이 높 든 공민들이 어떻게 분투하고 노력하는가에 전적

더없이 책임적이고도 무거운 사명과 직책상임무를

명적인 대중운동, 전인민적인 애국운동의 고귀한 우리 공화국의 강대한 힘과 위상을 다시금 궁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맡은 경제부문들에서 전통이 생활력을 나타내도록 하여 이것이 우리 시 지로이 체감하게 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나는 화국정부가 잠시도 멈춤없이 추진시켜야 할 중대 공화국력사에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펼쳐놓은 전세 대는 물론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되게 하며 모두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성 과제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것이 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새로운 생산적앙 모든 부문, 모든 분야, 모든 단위가 국가의 근본 스러운 애국투쟁에 총분기함으로써 올해를 자랑찬 라고 하시면서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 양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전반 리익, 전망적리익을 앞에 놓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자는것을 열렬히 호소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투쟁해나갑시다.

본사기자

충격과 감격의 런속으로 만인 을 격동시킨 조선의 9월이였다. 9월!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장장 75성상의 기나긴 려정에 오직 승 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남다 시각 사람들은 가없이 펼쳐 른 긍지와 자랑으로 가슴부풀어 오르는 9월이다.

공화국이 창건되여 75번째로 찾 아온 이 9월에 이 땅의 모든이들 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흥분시키 겨본다.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

공화국창건 75돐을 하루 앞둔 9월 8일.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 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이 신문 과 방송, TV를 통해 전해지자 온 나라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 지였다.

공화국의 영웅적인 군수로동계 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하여 창건 75돐을 맞는 어 머니조국에 선물로 드렸던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진수신호가 내리자 전체 참가자들의 감격과 환희를 닦은 꽃보라가 터져오르 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오르는 속 에 새로 건조한 신형잠수함이 바 다에 떠오르던 력사의 그 순간 을 잊을수 없어 외우고 또 외우 고있다.

못잊을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 진수하 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영웅》 함은 우리 해군무력의 핵심적인 수중공격수단의 하나로서 자기 의 전투적사명을 수행하게 될것이 라고 하시면서 《김군옥영웅》함 은 조선로동당과 그의 혁명공업

> 공화국인민들과 对日季의 힑 과시한 **대对为李及**

> > 기였다.

찬 광경이였다.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며 충성의 한마음 안고 달 려온 9월의 축전장들마다에 차넘 치던 끝없는 인민의 환희가 사람 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

《복받은 대지》!

이다

변군 월랑농장의 근로자들이

농장벌에 깃든 뜨거운 사연

과 가슴속에 고패치는 격정

지금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침수되였던 포

전들에 펼쳐진 풍년작황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로고와 심혈이

피해발생초기 즉시 당과 정

부의 간부들이 현장에 내

려가 피해상황을 구체적으

로 료해장악하면서 복구사업

주둔부대들에 필요한 력량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태풍

안아온것이다.

전사들이 숭고한 리상과 무비의 창조투쟁으로 출산한 선진해양강 국건설대업의 첫 산아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고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펼

쳐진 잊지 못할 순간순간들이 날

이 갈수록 거대한 진폭으로 행성

뜻깊은 9월이 저물어가는 이

진 맑고 푸른 공화국의 하늘

을 바라보며 올해 9월의 날과

날들에 새겨진 불멸의 화폭들

을 끓어오르는 격정속에 되새

을 뒤흔들고있다.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사아!

돌이켜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였 지만 단 4척의 작은 어뢰정으로 《바다의 섬》이라고 자처하던 미 제의 중순양함을 수장시키는 세 계해전사에 처음으로 되는 기적을 창조하여 세상을 놀래웠고 장장 70여성상 가없이 넓은 조국의 바 다를 지켜싸워온 영웅적조선인민 군 해군이다.

그렇듯 영광넘치는 기적과 빛 나는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공화 국해군무력이 오늘은 선진해양강 국건설대업의 첫 산아, 첫 전술 핵공격잠수함을 받아안는 력사적 인 시각을 맞이하였으니 어찌 사 람들이 감격하지 않을수 있으라. 세상을 놀래우는 또 하나의

사변적순간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은 해군무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 를 드리고드리였다.

그중에서도 공화국창건 75돐경

축 민방위무력열병식과 청년전위

들의 홰불야회는 참으로 가슴벅

인민의 이름으로 빛나는 나라 자라난 이 나라의 청년들.

> 그들이 손에손에 추켜들었던 마음, 애국의 마음의 분출이였으 며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이 세상 TV화면에 펼쳐지는 《계승자》,

> 그날의 광경앞에 세계는 다시금 똑똑히 목격하였다.

뒤 흔 든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절대적힘을. 세상에 없는 힘이다. 그 어느

나라에도 없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는 조선만이 가지고있는 투유의 절대적힘이다.

9월의 열병광장을 진감하며 견 결한 조국수호정신으로 만장약된 인민의 발구름소리가 지금도 들 려오는것만 같다.

그것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인 민의 자랑스러운 발구름이였고 조 국앞에 시련의 시기가 닥쳐온다 면 일터마다에 울리던 혁신의 노 래를 원쑤에 대한 증오의 함성으 로 터쳐올리며 원쑤격멸의 성전에 떨쳐나설 전민항전의 의지가 만 장약된 이 나라 인민들의 불타는 맹세의 발구름이였다.

《저 열병대오속에 우리 남편 과 아들이 다 서있습니다. 만약 원쑤들이 지난 조선전쟁때처럼 이 땅에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을 지 른다면 저도 손에 총을 잡고 온 가족이 다 판가리싸움에 떨쳐나 서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우리 군 대결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우리 인민이 서있는데 그 무한대한 힘 을 과연 어느 누가 당해낼수 있겠 습니까. 보면 볼수록 힘이 솟고 승리의 신심이 백배해집니다.》

이렇게 터치던 목소리에 이 나 라에 태를 묻은 남녀로소모두의 마음이 어려있었다.

경축의 그밤 김일성광장을 불 의 바다로 뒤덮었던 청년전위들의 화불야회는 또 얼마나 장엄하고 장쾌한 열병행진이였던가.

에서 인민의 꿈을 이루어가는 람 홍색국기의 펄럭임소리를 들으며

이글거리는 홰불은 그대로 그들 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충성의 끝까지 달려갈 충천한 기세였다.

《우리는 청춘》, 《빛나는 조국》,《태양조선》,《절세의 영웅》, 《일심단결》, 《인민의 나 라》, 《애국청년》, 《결사관철》 등 새겨지는 장엄한 글발마다에서 세인은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청춘

을 빛내이는 이 나라 청년들의 밝 은 모습을 보았고 령도자의 두리 에 일심단결된 청년전위들의 불패 의 힘을 더욱 절감할수 있었다. 그 힘으로 공화국은 영원히 백

승만을 펼쳐갈것이다.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낮과 빔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런방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9월 10일 오후 전용렬차로 평양을 출발하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로 부터 온 나라 인민들은 머나먼 외 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원수님께서 안녕히 돌아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12일 새벽 로씨야련방의 국경도시 하싼에 도착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13일 원동지 역의 아무르주에 위치하고있는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로 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 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력사적 인 상봉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원 동지역의 주요공업도시인 꼼쏘 몰스크-나-아무레시에 도착 하시여 유.아.가가린명칭 꼼쏘 몰스크-나-아무레비행기공장 을 참관하시였다.

매일매일 전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들으며 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 로 불타는 한초한초, 하루하루가 이 땅에 흘렀다.

가는 곳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바라고바라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 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이에

9월 12일 신문과 방송, TV를 대한 끝없는 그리움으로 눈굽을 뜨겁게 적시며 보다 큰 사업성 과로 보답할 맹세로 심장을 끓 이였다.

>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은 순간도 떨어 져 살수 없는 운명의 태양이시다. 언제나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온 나라 인민들을 따사로운 넓은 품에 안아 보살펴 주시고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손길 을 놓으면 삶의 전부를 잃게 되 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그 손길 꼭 잡고 그 품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이런 인민들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 에 계실 때에는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에 잠 못이루었다.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날 이 밝고 그리움으로 잠들줄 모르 는 이 땅에 보답의 마음들이 떠 올리는 성과들은 그대로 위훈이 고 기적이였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그 리움!

이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 을 다 바치시는 만고절세위인,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이 나라 천만인민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이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끝없이 충성 다하려는 맹세의 분출이다.

저이미적이 애국열로 끊어버지 9 %

뜻깊은 9월에 애국충정의 불길 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사회주의애국탄증산운동의 기 치를 남먼저 추켜든 개천지구탄 광련합기업소 자강도공급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뒤를 따라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청년돌격 대원들이 석탄증산의 불길을 더 욱 세차게 지퍼올리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2년분계 획완수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 서 위훈창조의 앞장에서 계속 힘 차게 내달리였다. 이들만이 아 니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구성 방직공장을 비롯한 방직공업부문 의 수많은 혁신자들도 자기 정량 의 2배, 3배이상의 기대를 맡아 2년분,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 겨 수행하기 위해 뛰고 또 뛰 였다.

얼마전에는 군수공업, 기계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수확기, 탈곡기, 파종기를 비롯한 1만여대의 농기계들이 가 을걷이와 탈곡, 가을밀, 보리씨뿌 리기로 들끓는 농장들에 집중수 송되였다.

당이 안겨준 애국청년이라는 값높은 부름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청년들도 증산투쟁, 창조 각지의 투쟁을 과감히 벌리였다. 공화국 의 그 어디에서나 중산과 혁신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지고있지만 특히 올해 공화국에서 더욱 이채 를 띠는 가슴흐뭇한 풍경이 있다.

그것은 풍요한 가을을 맞이한 기쁨으로 웃음꽃 피우는 농업근 로자들의 모습이다.

례년에 없는 흐뭇한 작황이 펼쳐진 농장벌을 바라보며 사람 들은 누구나 위대한 어버이의 천만로고를 돌이켜본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 회의에서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강령적 지침을 마련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영농물자보장으로부터 관개건설, 강령호담수화공사 등 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해 기울이신 경애하는 그이의 심혈과 로고에 대해 전하자 면 끝이 없다.

잊지 못할 지난 8월에는 몸소 강원도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 농장을 찾으시여 침수된 농경지 들을 돌아보시면서 이 농장벌에 도 우리 군인들의 충성의 구슬 땀이 뿌려져있다고, 우리 군인 들의 애국충심에 의해 자연재해 를 입었던 이곳에도 황금이삭이 설레이는 바다가 펼쳐지게 될것 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이시다.

하기에 농장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은 사회주의전야마다 에 찾아온 황금가을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것이라고 격 정을 터치는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전체 인민들 이 한사람같이 펼쳐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속 에 마련된 훌륭한 작황이 나라쌀 독을 가득 채우는데로 이어지도 록 하기 위해 땀과 열정을 깡그 리 다 바쳐가고있다.

9월 이 한달동안에만도 공화국 에서 인민의 기쁨의 웃음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행복의 재부도 늘 어났다. 공화국의 오늘과 미래는 9월의 푸르청청한 하늘처럼 밝게 펼쳐져있다.

감동과 충격, 환희의 9월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잊지 못할 9월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욱자욱을 되새겨보면서 온 나라 인민들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사랑하는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불철 주야의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걸으 시는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사무 치는 고마움으로 눈굽을 뜨겁게 적시고있다.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낮 에도 밤에도 위민헌신의 길을 쉬 임없이 걷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영광과 행복으로 넘치는 공 화국의 9월이 전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려정은 이 땅 에 무수히 새겨지는 사변들과 더불 어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풍요한 가을을 맞이한 안 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

을 세상에 전하고저 풍작 이 한 방안들도 밝혀주시며 피

을 벌린 결과 빠른 시간내 고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정, 현명한 령도에

알곡수확교에 영향이 미치지 룬 포전에 크게 새긴 글발 해복구사업을 몸소 지도하여 않도록 시급히 영양관리대책

이 뛰여들어 헌신적인 투쟁

벌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

지 않으시여 아직 큰물이 찌

지 않은 복구현장을 찾으시

고 피해를 시급히 가시기 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 주신 은정어린 조치에 따라 하늘에는 직승기가 날아오 르고 땅우에서는 인민의 생 을 내밀도록 하시고 강원도 명안전을 목숨으로 지키는것 을 자기의 본분으로, 절대사

을 따라세울데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를 또다시 찾으시여 직승 기와 경수송기들의 농약살포 사업을 몸소 조직지휘하시였 으며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

농장의 전경을 둘러보시며 자

에 강하천제방복구가 성과적 으로 끝나게 되였다. 최대한 농작물을 보호하고 의해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포전들에는 잘 익은 벼이삭

> 들이 고개를 숙이고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침수피해를 받았던 땅에 만풍년의 가을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헌신을 전하고저 이곳 농장 원들은 월랑농장의 포전에

가을과 행복이 깃들기 바란다

크게 새기였다. 복받은 대지가 어찌 오계 농장과 월랑농장의 포전들만 이라고 하랴.

《복받은 대지》라는 글발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온 나라의 전야 가 황금이삭 물결치는 복받 은 대지로 되였다.

김 철 진





영광과 행복속 에 사는 인민은 없다.

나의 아버지도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누 리며 한생을 빛 내인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창건 75돐을 하 루 앞둔 날이였 다. 아침에 《로 동신문》을 펼쳐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새로 건 조한 잠수함 진 수식이 성대히 진 고귀한 귀감으로 빛나고있다 행되였다는것을 고 말씀하시였다.

전하는 보도기사 격정으로 눈굽을 적시였다.

을 읽어내려갈수 록 나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는 감동과 격정 으로 더욱 끓어번지고 심장 은 세차게 높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버 지의 이름을 거듭거듭 불러 주신것이였다. 벌써 한달도 나의 아버지의 위훈을 값높 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군의 빛나는 전투행로에 불 사신의 영웅정신을 길이 기 록한 김군옥, 채정보영웅을 비롯한 전세대 해군용사들 의 불굴의 전투정신이 새세 대 해병들을 승리에로 고무 하고 위대한 주체사상이 승 리의 항로를 밝혀주고있기에 우리 해군의 앞길에는 영원 히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 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 얼마전 공화국 였다. 그이께서는 그로부터 며칠후 해군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를 축 하방문하시여 하신 축하연설 에서도 영광스러운 조선해군 무력의 군기들에는 김군옥, 채정보영웅을 비롯한 전세대 해군용사들이 피와 목숨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맑고 푸 를 읽으면서 나 른 조국의 바다를 굳건히 지 는 솟구쳐오르는 켜갈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 잠수함에 아버지의 이름을 달아주시였으니 세상에 이보 보도문의 글줄 다 더 큰 사랑과 믿음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새겨넣은 불굴의 전투정신이

나라없던 그 시절에 집안의 유일한 기둥이였던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고 《거지》로 불리우며 이역땅에서 신문배달 과 우유배달로 목숨을 연명해

야만 했던 나의 아버지였다. 그런 수난자였던 아버지가 못되는 사이에 세번씩이나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병 이 되였고 공화국영웅으로

이름떨치게 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난 8월 오중흡7련대칭호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청사

세우 제2어뢰정대 해병들에 게 높은 국가표창을 주어야 하겠다고. 어뢰정대를 잘 지 회하여 주문진해상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하는데 결정적기 여를 한 제2어뢰정대 정대장 과 2발의 어뢰를 다 명중시 켜 적중순양함을 격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제22호어뢰 정 정장에게 공화국영웅칭호 를 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아버지의 가슴에 금별메달을 달아주시고 온 세상이 다 알 도록 내세워주시였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기의 인 생행로를 돌이켜보면서 사람

들은 나를 보고 세계해전사 의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말하 군 하는데 사실 그 기적의 창 조자는 우리 수령님이시라 우리 온 집안, 아니 전승세 고,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싸웠기에 세상을 놀래 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 다고 말하군 하였다. 아버지에게 베풀어주신

거운것이였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아버 지는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

까지 전승세대의 영웅정신을 후세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주 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로 값높은 생의 나날을 보낼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의 아들로서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서 응 당 해야 할 일을 한 아버지를 잊지 않으시고 영광의 최절정 에 올려세워주시였다. 정말 절세위인들의 하늘같

은 사랑과 믿음에 의해 아버 지는 값높은 영생의 삶을 누 리고있다.

아버지가 받아안은 크나 큰 사랑과 믿유. 그것은 결 코 아버지 일개인이 받아안 은 사랑과 믿음이 아니다. 대의 후손들이 받아안은 무 상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우리 김군옥일가는 위대한 그 사랑, 그 믿음을 언제나 심 장에 새기고 아버지가 그러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 던것처럼 수령을 위하여, 조국 과 믿음은 또 얼마나 가슴뜨 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열혈충신, 참된 애국자 들로 한생을 빛내이겠다.

김 해 림 (김군옥영웅의 아들)



참세상입니다 광명의 암흑에서 **찾은**

9월의 하늘가에 이 나라 인민의 꿈 과 리상이 실린 람홍색국기들이 세차계 펄럭입니다.

75년의 만단사연을 전하는 람홍색기 폭들을 바라보느라니 저 국기아래 흘 러온 나의 길지 않은 후반생이 삼삼히 돌이켜집니다.

내가 40년간의 곡절많은 과반생이 얽힌 암흑의 괴뢰사회와 결별하고 공 화국의 품에 안긴지도 어언 서른세해 가 흘렀습니다.

일

만일 이제 다시 나에게 두 인생길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 은 그 집을 《태양별장》이라고 불렀습니

그것은 생의 가치나 보람이 결코 년

불 모 의

인생은 꿈이 있어 아름답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목적없는 항해처럼 무의미하며 리상을 실현하려면 거기에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것이 나의 인생지 론이였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운명을 걸고서도 이룰수 없는것이 꿈이라는것을 깨

원래 내 생의 뿌리는 여기 공화국땅

때부터 철이 나는 고장이라 하여 철원 으로 불리워온 오랜 력사를 가진 고을 이였습니다.

그런데 8.15해방과 함께 국토분렬의

내 고향 보막리에서 멀지 않은 남쪽 으로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38°선 이 지나가면서 철원지역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던것입니다.

38°선 남쪽에서 악명높은 미군정이 실시 되고있을 때 우리 마을에서는 민주개혁의 봄빛이 흘러넘치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는 마을사람들의 행복

되지 못한 인민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겨우 5살이였습니다.

암울한 세상일수록 꿈은 더욱 소중합 니다. 그 희미한 등불마저 없다면 우리 혔습니다. 처럼 돈없고 힘없는 인생들이 살아나갈

생전에 나의 아버지는 일년지계라면 곡식을 심고 십년지계라면 나무를 심 으며 평생지계라면 사람을 돌보고 가 르쳐야 한다는 말을 자주 외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어려서부터 엉뚱한 생 각으로 자주 집식구들을 놀래우군 하 습니다.

돌아온 23살의 혈기방장한 나는 부조리 재벌들만이 저들의 부패타락한 욕구를 한 사회에 도전하는 심정으로 청소년들 을 위한 자선학교를 세울 대담한 목표 로인민들에게는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오론》을 밤낮으로 불어대는 반공세계 를 세웠습니다.

부터가 일종의 객기였으나 어쨌든 부패 꿈》이라고 하던 형님들의 말이 생각났 고》로 될 나의 대망을 실현하자고 보니

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험악한 세 상에서 제 돈으로 남의 아이들을 공부 시키려는 나의 리상을 대번에 망상으로 치부하며 거절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나 의 끈질긴 설득에 못이겨 나의 세간분 을 노래하는것만 같았습니다. 배몫으로 저축하였던 예금통장을 꺼내 놓으면서 자금이 떨어지면 다시는 돈 을 달래지 말라고 랭정하게 선을 그었

숨짓던 어머니의 정상이 아직도 눈에 한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40년과 33년. 한 인간의 서로 다른 인생사가 실린

두갈래의 세월이였습니다.

는 주저없이 33년을 택할것입니다.

륜에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선합니다.

우쳐주었습니다.

에 있었습니다.

내가 태여난 강원도 철원군은 고구려

희생물로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습니다.

내가 3살 나던 해에는 그 이름도 자랑 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 되여 자주독립국가의 첫 공민으로 된 고 향사람들의 환희와 만세소리가 온 골안 을 진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세가 곧 신념의 표현은 아 니였습니다. 신념이 없으면 자기 보금 자리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그 후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똑똑히 알 았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는 일시적 으로 강점한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쫗 겨가면서 원자탄사용을 운운하며 각성

그것이 공화국정권으로부터 인민들을 떼여내기 위한 술책임을 알리 없던 나 의 부모들은 며칠밤을 뒤척이다가 공화 국에 대한 신념이 확고치 못한탓에 자 식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솔가도주하는 운명적인 착오를 범하였습니다.

정전후 우리 마을 남쪽산기슭을 가 로지른 군사분계선때문에 고향으로 돌 아갈수 없게 된 우리 가족은 할수없이 를 강제폐교시키는 파쑈적폭거를 감행 정든 향촌이 바라보이는 경기도 포천군 에 눌러앉고말았습니다.

불모의 땅에 휘뿌려진 불행한 씨앗이였 도당을 끝없이 저주하며 피눈물을 흘 아닌 아름다운 우리 말로 단장된 주체 이 외진 등대섬과 최전연마을 학생들 일처럼 격랑을 일으킨 그 세찬 충격과 해하실것이라고, 한생토록 그처럼 사랑 습니다.

용기조차 낼수 없었을것입니다.

무지막지한 군사독재하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리상실현에 나선것 첫째도 둘째도 걸린것이 돈이였습니다. 왔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

습니다.

4 0 년

나는 눈물을 머금고 학교건설에 달라 붙었습니다. 하여 1968년 당시 괴뢰지 역에서 제일 큰 자선중학교였던 운천재 건중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이 되였습니 다. 그리고 돈이 없어 공부도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던 270명의 아이들을 공

납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공부시켰습니

다. 자금이 떨어지면 여러가지 축산과

뽕밭조성, 과일장사 등으로 간신히 학 교를 유지하였습니다. 나는 자본주의세계에서도 마음만 먹 으면 교육복지를 실현할수 있다는 기대

와 신심에 넘쳐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를 막론하고 사회 정치적리상을 실현하자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사회적조건과 환경이 담보되여

야 합니다. 리상을 새에 비유한다면 사회정치제 도는 그 새가 나래칠수 있는 창공과도 같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사 회는 구조적으로나 리념적으로 볼 때 하나의 거대한 조롱이고 감옥이라는 사 실을 나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있 었습니다.

자선학교의 운영으로 일정하게 명성 을 얻은 나는 1978년 5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출마하였습니 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란 당시 박정 희역도가 장기집권을 위해 꾸며낸 어용 도구로서 《대통령》을 직접선거가 아니 라 2 500여명의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뽑기 위한 꼭두각 시기구였습니다.

나는 어용기구의 불순한 목적보다 당시 위세가 당당한 《통일주체국민회 의》 대의원신분에 현혹되여 그것을 리 용하면 학교운영과 파쑈악법철폐와 같 은 사회적활동에 유리할것으로 타산하 고 학부형들과 군내주민들의 지지를 받 아 33살의 젊은 나이에 대의원으로 당 선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끝났습니다. 내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서 야당계인물들과 접촉하고 악법철폐 투쟁을 벌러나가자 괴뢰당국과 《공화 당》, 경찰서깡패들은 2중3중으로 압력 을 가하다 못해 나중에는 우리 학교

하였습니다.

나의 첫 꿈은 이렇게 참혹하게 짓밟

렸습니다.

그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사퇴한 나는 민주사회당 지구당 위원장 들의 치졸한 앙탈질에 지나지 않는것이 을 거쳐 1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나 였습니다. 서보았으나 당국의 집요한 탄압으로 중 도 해보았습니다.

허나 어디 가나 자선과 인도주의를 권리, 생존의 요구도 실현될수 없었던 것입니다.

《살기도 힘든 세상에 꿈은 무슨 가 즐겨 부르던 구슬픈 곡조가 흘러나 니다.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궂은비 내리는 이밤도 애절구려

불러보니 신통히도 번지없는 내 인생

하지만 인간은 살아있는한 절대로 희 망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한 어느 철학자 의 말처럼 나는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희망은 포기할수 없었습니다.

타향에서 일찌기 남편을 잃고 홀몸으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다는 알수 료비, 교육비와 같은 초보적인 생계비 로 6남매를 키우며 피나게 모은 밀천 없었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내가 더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에 가면 《산정호수》라고 부르는 크지 않은 인 공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식기와를 얹은 수수한 집 한채가 있는데 사람들 다. 그것은 해방후 김일성장군님께서 이곳(전쟁전 공화국북반부지역)에 찾아 오시여 농민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시

여 호수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사 를 잘 지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38° 선너머 남쪽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시 며 미제의 식민지통치에서 신음하는 인 민들의 처지를 두고 몹시 가슴아파하

신 이야기에서 유래된 이름이였습니다.

《태양별장》에 깃든 사연을 전해들 은 후부터 나의 뇌리에는 어버이수령님 의 위인상이 깊이 새겨지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자선학교를 운영할 때 과외수업 의 명목으로 자주 그곳에 학생들을 데 리고 나가 《태양별장》에 대한 이야기 도 들려주고 주변에 나무와 꽃도 싞고 가꾸면서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과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군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양방송과 공화국의 소식에 더 자주 귀를 기울이면서 공화국에 펼 쳐진 인민의 리상사회를 눈앞에 그려보 았습니다. 그럴수록 공화국현실을 내 눈 으로 직접 확인해보고싶은 욕망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가 꽃피는 해빛밝 은 세상에서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고싶 은 강렬한 충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1989년 《전민련》 고문 문익 환목사와 《전대협》대표 림수경이 런

이어 평양을 방문하고 어버이수령님을

사람의 일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 은 자기의 꿈과 리상이 이루어지는 때 인가 봅니다.

공화국에로의 의거입북은 내 인생에 서 단순한 방향전환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리상이 참답게 실현되 는 새 세계의 대문을 연 중대한 사변 이였습니다.

듣던바대로 공화국은 정말 볼수록 매혹적이고 알수록 더욱 수수께끼같은

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내가 처음으로 받은 강렬한 인상은 평양시입구에 나불 은 구호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였습니다. 공화국정치의 자주적특징이 간결하게 응집된 구호를 보는 순간 오 랜 세월 막혀있던 가슴이 쩡 열리는것

만 같았습니다. 괴뢰당국자들은 걸핏하면 공화국정치 를 《폐쇄정치》라고 헐뜯으면서 저들의 사대매국정치는 《열린 정치》, 《실용 정치》로 미화하고있습니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 열두번째 졸업식을 마감으로 학교의 에서 자위의 원칙을 생명으로 간주하는 이렇게 나는 행운이 기약되여있던 고 문을 닫던 날 나는 사랑하는 제자들 나라, 단 한명의 외국군대나 외국군사 향땅을 버리고 운명의 광풍에 휘말려 과 교직원, 학부형들과 함께 군사파쑈 기지도 없고 거리와 상점들은 외래어가 려나가고 수도의 일류급대학졸업생들 가 선 나라.

이런 나라를 《폐쇄적》이라고 헐뜯 는것은 결국 세계가 선망하는 자주강

도에서 정치적리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을 고 살고있습니다. 경제계와 체육계를 전전하며 중진노릇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이였습 니다.

였으며 생활고에 시달리며 장사일에 바 표방하는 나의 리상이 랭대를 받기는 업, 주택, 교육, 보건에 대한 인민들 삐 돌아가는 형님들을 보면서 돈만 아 마찬가지였습니다. 썩어빠진 미국식가치 의 요구와 부담을 국가가 감당할 엄 는 인간이 되지 않으리라 속다짐하였 관과 철저한 반공리념에 기반하고있는 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총 괴뢰지역의 기형적이며 반동적인 체제 생산액이 그들과 비교도 안되는 공화 고등학교졸업후 괴뢰군살이를 마치고 하에서는 1%도 안되는 특권족속들과 국에서 그러한 리상적인 정치를 실현 하고있다는것이 한뉘 자본주의세계에 끝없이 만족시킬수 있을뿐 절대다수 근 서, 그것도 《동족대결론》과 《동족혐 에서 살아온 나로서는 선뜻 리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모든것을 자본주의자막대기로 재여보는데 습관된 나는 가는 곳마다 한 괴뢰교육제도에 대한 일대 《선전포 습니다. 부지중 나의 입에서는 아버지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될수밖에 없었습

> 학교에 가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세금 을 아는가고 물었다가 《우리 학교에는 랐습니다. 신념이 없이 미국놈의 원 해금, 가야금, 목금은 있어도 세금은 없습니다.》라는 왕청같은 대답이 튀여 나와 모두를 웃기였고 안해가 평양산원 니다. 에서 퇴원할 때에는 수술비가 얼마인가 고 물었다가 의사선생들을 아연케 하였 습니다. 내가 진지한 태도로 문제를 제 기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신기하게 쳐다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경우를 따지면 쌀값과 집값, 치

만나뵈온 소식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 습니다.

털어버리고 인생전환의 대용단을 내리 게 되였습니다. 비록 청춘의 혈기도 다 지나고 인생의 저물녘에 들어선 중년기 였지만 더이상 저주로운 땅에서 여생을 덧없이 허비하고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처자, 형제들의 얼굴이 무시로 눈앞에 떠오르며 발목 을 붙잡았지만 이 길이 나와 어머니, 겨레의 소망과 념원을 실현하는 길이라 는 생각으로 결심을 가다듬었습니다.

1989년 10월중순 나는 눈에 뜨이지 않는 관광객차림으로 성공을 기약할수 없는 북행길에 올랐습니다. 내 인생에 서 두번째로 운명을 건 인생전환의 꿈 이 실린 초행길이였습니다.

머나먼 유럽땅을 돌고돌아 10여일간 의 긴장한 려정끝에 드디여 공화국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섯살때 9살짜리 누나의 등에 업 혀 폭탄구뎅이를 에돌며 고향을 떠났 던 철원군의 산골마을 초동이 근 40년 만에야 중년의 객이 되여 어머니조국에 다시 안겼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속에 어머니를 불 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꿈결에도 오고싶 던 공화국에 규진이가 왔습니다. 저 혼 자 온것을 용서해주세요. 어머니-》

맑고 푸른 하늘에서는 눈부신 태양이 따사로운 해살을 뿌리며 암흑의 동토대 에서 얼어든 나의 온몸을 포근히 감싸 주고있었습니다.

하여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민을 하늘 처럼 여기는 이민위천의 세상에서 모

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

은 그것을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이는것

이 바로 공화국특유의 사회주의,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현실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공화국공민들의 꿈과 리상이

니까. 자본주의세계에서는 누구나 꿈을 꾸 어도 오로지 저 하나를 위한 일확천 금의 꿈을 꾸고 벼락횡재, 벼락출세의

왜 그처럼 순결하고 아름답지 않겠습

꿈을 꿉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생존의 꿈에 시달 리거나 탐욕의 꿈을 꾸는 사람도 없

었습니다. 꿈많은 처녀들이 하늘아래 첫동네 인 대홍단벌과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로 다릅니다. 강자는 언제나 이기는 달려가고 운신하기 어려운 영예군인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는데서 리상과 행 복을 찾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청춘의 푸 쳐다보기때문입니다. 결국 리상은 강자 수령님께서 자신의 주택이 철거된 대신 른 꿈도 뒤에 두고 조국보위초소로 달 의것이요 절망은 약자의것입니다. 을 가르치는데서 남다른 긍지와 보람 감격의 순간을 잊을수 없습니다. 을 찾고있습니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평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 습니까.

의 행군…

고백하기조차 부끄럽지만 공장과 마 을에 불빛이 꺼지고 달리던 렬차들이 저 어지럽게 나돌고있을 때 나의 심 경은 착잡하였습니다.

있을가. 혹시 동유럽나라들처럼 되지 의 멸사복무의 헌신과 로고에 삼가 경건 원수님을 따라 차디찬 바다물에 뛰여 는 않겠는지, 그러면 나와 우리 가정 의 운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하지만 다음순간 나는 소스라쳐 놀 과 리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현

자탄공갈에 속아 남으로 끌려갔던 부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로, 운명공동체 끝없이 펼쳐가십니다. 로 이어놓고 공민적의무와 본분에 대

하여 깊이 생각해본적은 없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시책을 단 하루도 중단하지

정

는 숭고한 인생관과 후대관을 지니시 고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 나는 마침내 온갖 번거로운 상념을 영소로 가는 나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 념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간직하고 단 순히 시련의 언덕을 넘기 위해서가 아 니라 장군님께서 가리키신 부강번영할 미래를 향하여 산악같이 일떠선 나라, 이런 나라에 설사 자연의 재난은 밀 려올수 있어도 그 어떤 좌절이나 붕괴 의 재변이란 있을수도, 상상할수도 없 다는것을 나는 그때 온몸으로 체험하 였습니다.

>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오늘도 최첨단 정찰위성을 비롯한 각종 수단과 방법 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에 대한 파렴치 한 정탐행위와 정밀분석에 집요하게 매 달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여 공화국이 극한의 위기에서도 몰락하 지 않고 번영에로의 꿈을 안고 더 높 이 비약할수 있었는지, 압박하면 할수 록 더욱 강고해지는 공화국의 생존력 과 불패성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끝 내 밝히지 못하고 실패한 적대시정책만 답습하고있습니다.

> 단언하건대 미국식가치관으로는 절대 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 인류 사적대제를 리해할수 없으며 공화국을 알려면 주체사상부터 알고 그 과학성 과 진리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시련속에서 찾은 진리를 안고 전국의 학교와 마을, 공장과 농어촌들 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인 생체험과 교훈을 통하여 공화국의 귀중 함을 더 잘 알고 나의 리상이며 우리모 두의 운명인 부강조국건설에 애국의 구 슬땀을 아낌없이 바칠것을 열렬히 호소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념원과 인민의 세기적숙망이 어린 사회주의강국의 눈부신 리상은 오늘 김정은시대와 더불어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 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리상을 온 누리에 선포하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놓으신 자 주강국의 반석우에 세계가 알지 못하 는 절대강국의 실체를 불과 10여년어 간에 그처럼 빠른 속도로 쌓아올리시 였습니다.

지나온 10년을 돌이켜볼수록 가슴에

새겨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꿈에도 인간의 신념과 의지가 비낍 니다. 그래서 강자와 약자의 꿈은 서 꿈을 꾸지만 약자는 비겨도 천만다행 이라고 자체위안하는것입니다. 강자는 자기 힘을 믿지만 약자는 남의 힘을

지금도 전승 70돐경축 열병식장에 해 친 보금자리가 마련된것을 아시면 만족

100% 우리의 기술과 힘, 우리 식 으로 완성된 최첨단전략무력이 제국주 니 동서고금에 왕궁을 짓기 위해 백성 국에 대한 극도의 렬등감에 사로잡힌자 범한 가정주부 누구라 할것없이 당과 의폭제의 종말을 선고하며 굽이쳐나가 국가의 고마움과 귀중함을 간직하고 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오랜 어려울수록 사회와 집단, 나라의 부강 세월 품어온 반만년의 꿈, 부국강병의 공화국현실에서 내가 제일 놀란것은 번영을 위한 숭고한 리상을 가슴에 안 숙원이 가슴후런히 풀려나가는 장쾌한 공화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인민사랑의 순간이였습니다.

나는 공화국의 그 미더운 핵병기들 픔들이 매 인간과 가정들, 거리와 마 이 70년전 미제의 원자탄위협에 쫓겨 세계의 그 어떤 부유한 나라도 직 을들, 도시와 전야를 휩쓸고 지나갔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사랑하는 혈육들 과 생리별을 당해야만 했던 나의 부모 우며 꿈을 꾸어도 원수님에 대한 꿈 민족의 대국상과 런이어 들이닥친 자 들과 이 나라 수천만사람들의 가슴속 을 꿉니다. 연재해.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와 적대 에 쌓이고 맺힌 원한의 눈물을 씻어주 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 고난 는것만 같아 눈시울이 젖어들고 목놓 서 학교에 찾아오신 아버지원수님을 만 아 웨치고싶었습니다.

>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였습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병진의 혈로에서 에 원수님을 만나뵙는 꿈을 꾸다가 단 멎어서고 원쑤들의 《3.3.3붕괴설》마 기어이 백년, 천년의 영원한 평화와 번 영을 안겨주시기 위해 사선길에도 주저 없이 나서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행도 (공화국이 이 고비를 과연 이겨낼수 달게 여기며 헤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원수님처럼 인민들의 꿈 실로 꽃퍼주시는 령도자는 없습니다. 버섯공장에 가시면 우리 나라를 버 입니다. 모들의 평생절규가 나의 뇌리를 쳤습 섯의 나라로 만들고 백리과원에 가시 면 우리 나라를 과수의 나라로 만들 《공화국을 지키는것만이 우리가 살 며 가까운 앞날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길이다. 공화국은 우리의 운명이다!》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우주강국, 그때처럼 자신과 공화국을 뗴여놓을 체육강국으로 만드실 응대한 설계도를

> 우리 원수님의 교육관은 어린이들에 대한,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

자본주의세계에서는 교육이 철저히 당 알아야 할것도 모르고 지내는데 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한다. 리윤을 위해 투자하고 자선가는 공명

과 또 다른 부가가치를 위해 투자합 니다. 내가 50여년전 괴뢰지역에서 유 토피아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자선학교 를 세운것도 돈없는 아이들에게 초보적 인 교육이라도 주어 그들이 비참한 인 생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려는 자선적 목적과 함께 그것으로 일정한 사회적명 성을 얻으려는 욕망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주체103(2014)년 6월 평양애육원에 찾아오시여 원아들을 잘 키워 앞으로 이들속에서 이름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접하면서 나는 한때나마 자신을 량심적인 교육 자로 자부해온 지난날이 더없이 부끄 러웠습니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 이라고 하시며 나라가 최악의 시련을 겪는 속에서도 해마다 1만세대이상의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 로 내세우시고 추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뭐가 넉넉하고 돈이 남아나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처럼 주 택건설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리득을 추구하는것은 더더욱 아 닙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문제는 우리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이며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직접 페부로 느 끼게 하는데서 일차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살림집 문제를 제일먼저 해결한 나라로 만드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보통강반에 는 원래 어버이수령님의 옛 저택이 자 리잡고있었습니다.

그 저택은 말이 한 나라 국가수반의 저택이였지 자신에게는 크고 화려한 집 보다 소박하고 아담한 집이 더 좋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엄격한 요구에 의 하여 오늘의 다락식주택 한채보다 더

작게 지어진 수수한 집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자리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범 한 인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구를 짓 도록 하시였을 때 나도, 온 나라 인민 도 자기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언제인가 북부피해복구전투때 나라에 서 지어주는 새집이 너무 부러워 자기 집을 제손으로 허물어버린 주민에게까 지 새집을 안겨주시였고 큰물피해를 입 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마을을 새로 지어주실 때에는 1동1세대를 바라는 농 장원들의 《욕심》도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집을 지어주도록 하신 자애로운 원수님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의 숨결과 체취 가 어려있는 터전에 인민의 호화주 택구를 일떠세워주시고 아마도 우리 그 뜰안에 애국자, 공로자들의 행복넘 하신 인민을 따뜻이 품어안으신것같아 정말 기뻐하실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 들의 집을 허문 전례는 있어도 수령의 저택자리에 인민들의 살림집을 짓는 일 은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섞기는 우리 전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민들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함만 들어도 눈물짓고 언 제나 원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어제밤 꿈속에 나뵈온 꿈이야기도 나누고 발전소건설 장에 가면 쪽잠에 든 돌격대원이 꿈결 잠을 깨운 동무에게 화를 낸 이야기도 들을수 있습니다.

잠결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드는 인민들, 섬초소를 떠나시는 들고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불타는 그리움을 안고사는 천만군민의 가슴 속에 고동치는 하나의 간절한 념원 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과 건강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정으로 통 하는 나라, 령도자는 인민의 리상을 위해, 인민은 령도자의 구상을 실현하 기 위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 이야말로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흔들 림없고 그 어떤 대적도 넘볼수 없는 천하제일강국, 리상형의 강국이 아니

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암흑속에서 찾은 을 아들의 허망한 망상에 밀어넣고 한 부터인가 암야의 초불처럼 희망을 주는 이상히 여겨야 할것이였으나 그들은 응 않은 나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리윤을 위한 자본시장으로서 자본가는 광명의 참세상, 인민의 꿈이 꽃피는 나라입니다.

애

궄

日

를

사람들은 전인민적으로 널리 애창되는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깊어지는 그런 노래를 두고 명곡이라고 한다.

명곡은 나라와 민족, 시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대변하기도 한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이 사 랑하며 즐겨 부르는 명곡들은 많다. 그러한 명곡들중의 하나 가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 들》이다.

그대가 한그루 나무라며는 이 몸은 아지에 피는 잎사귀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

이 노래는 1984년에 창작된것 이다

노래의 가사에 있는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흙이 되여 뿌 리 덮어주리라》는 구절은 해방후 조국건설의 나날로부터 오늘 에서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서슴없이 바친 이 나라 인 민들의 애국적인 삶을 그대로 반 영한것이다.

지금도 눈앞에 어려온다.

생명도 희망도 행복도 조국의 운명보다는 귀중치 않다고 웨치 며 불뿜는 적의 화점들을 몸으 로 막은 전승세대들, 전후 재더미 우에서 기적의 천리마를 떠올리 고 고난의 행군시기 허리띠를 조 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 대를 다진 전세대들의 모습이…

내 나이 올해 89살이다. 몇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젊은 나이

에 박사가 된 사람은 보았어도

80고령에 박사가 되였다는 이야

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

면서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

0

M

ध्य

图

군 할 때마다 나는 내가 안

겨사는 공화국의 품이 얼마

나 따뜻한 삶의 품인가 하

내가 공화국의 품에 안기

비참한 인생살이에 부대끼다

가 오래전에 불우한 생을 마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나는

서울에서 모진 가난속에 온

갖 고생을 겪으며 어린시절

아버지는 지게군을 하고

어머니는 삯빨래를 하며 겨

우 생계를 이어가는 속에서

도 세 자식중 나만은 어떻

게 하나 공부시켜보려고 무

진 애를 썼다. 그러던중 해

방을 맞이했건만 일제를 대

신하여 기여든 미국놈들에

의해 설음의 학창시절을 보

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온갖

고초를 겪으며 인민의 세상

을 마음속으로 그리던 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이 해

방되자 남먼저 의용군에 입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

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전

선에서 소환되여 김일성종합

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나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믿음에 높은 학업성적으로 보답하

나라에서는 나에게 학용품과

장학금을 안겨주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꿈에도 바라마지

나를 위해 기울인 동지들의 사

랑과 정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

않던 교단에 서게 해주었다.

못했더라면 박사는커녕

는것을 절감하군 한다.

쳤을것이다.

을 보냈다.

대하였다.

전 나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들의 뜨거운 선혈과 고귀한 땀방울에 의하여 공화국은 가장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방 에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세대들이 지녔던 애국의 마음과 조국을 위 해 바친 삶의 자욱자욱을 그대로 시어로 표현한다면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일것이다.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 비록 열한 글자밖에 안되는 이 짧은 말속에 위대한 공화국 이 걸어온 승리와 기적의 영광 스러운 력사가 있고 사회주의조 선이 지닌 무궁무진한 힘의 원 천이 있으며 강대하고 존엄높은 국가를 떠올린 이 나라 인민의 모습이 있다.

한 나라 인민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가를 보면 그 나라 인민들의 정신세계와 인 생관, 리상과 포부를 알수 있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그 어 떤 시련과 곡경속에서도 언제나 인민을 품어안고 온갖 눈바람, 비 바람 다 막아주며 행복만을 안겨 주는 사회주의조국을 자기의 생명 처럼 여기고있으며 조국의 부강번 영을 위해 혼싞을 다 바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 로 맞이하기 위한 충성의 80일 전투가 힘차게 벌어지던 몇해전 10월 어느날, 개천지구탄광련합기 업소의 조양탄광 3갱에서는 뜻밖 의 붕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압축 공기도 보장되지 않고 전기선도 끊어지고 물도 없는 막장에 갇힌 4명의 탄부들속에는 20대의 젊은 소대장과 년로보장을 눈앞에 둔 발파공아바이, 꽃나이운전공처녀 와 어린 두 자식의 아버지인 채 탄공이 있었다. 그들중 대부분은 붕락을 처음 겪는 사람들이였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긴장한 전 투끝에 막장을 열었을 때 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의 눈앞에 제일 먼저 안겨온것은 동발목에 써있 는 《우리는 비관하지 않는다. 원수님 계시여 80일전투의 승리 는 확정적이다!》라는 글발과 함 께 다음교대를 위하여 또 한차례 의 발파준비를 해놓고 쓰러진 그 들의 모습이였다.

찬바람 불어와 떨어져도 흙이 되여 뿌리를 덮어주는 나무의 잎 새처럼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 한 그들의 인생관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강대하고 존엄높은 공화국의 오 늘은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조 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이 런 참된 인간들의 고결한 애국심 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러한 애국자들은 이 땅에서 몇몇 사 람들이 아니라 온 나라의 천만 인민이다.

하기에 이 나라의 인민들은 노 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을 그토록 사랑하며 즐겨 부른 다. 이 노래가 조국에 대한 자신 들의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그대 로 대변하고있기때문이다.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 이 인생관을 삶의 본령으로, 좌우명으로 삼고 공화국의 인민

들은 조국을 위한 멀고 험난한 투쟁의 길을 강인히 헤쳐왔으며 오늘은 더욱 휘황찬란할 미래를 향하여 세월을 주름잡으며 용진 하고있다.

영웅조선의 절대적힘을 만장약 한 주체병기들과 건설의 대번영 기속에 천지개벽되는 수도 평양,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리상 촉으로 전변되는 사회주의농촌들 과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는 오 늘 공화국의 인민들이 어떻게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 락원을 일떠세우고있는가를 웅변 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이 있어 위대한 인 민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공화국을 세상에서 제일 강대 한 나라, 인민의 만복이 꽃펴 나는 나라로 일떠세우시려 위민 헌신의 길, 애국헌신의 길을 쉬 임없이 이어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

는 김정일애국주의와 관련한 자신의 사상감정을 소박한 시구 로 표현한다면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이라고, 자신께서는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 는 구절이 들어있는 노래 《나 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사랑 한다고, 그것은 노래의 그 구절에 자기의 한몸을 깡그리 바쳐서라 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 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깃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열렬한 애국의 세계를 지니시였기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사생결단의 험로역경을 진두에서 굴함없이 헤치시며 공화국의 존엄 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 우시고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를

보

앞당겨오고계신다.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모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뜻과 발걸음에 자신을 따라세우 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 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기여 가고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 참가 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평범한 나날에 나 어려운 나날에나 가사보다 국 사를 먼저 놓고 혼심을 바쳐 조 국번영의 값진 재부들을 창조해나 가는 공로자, 로력혁신자들을 비 롯한 애국적인민이야말로 국가의 제일재부이고 국력증의 국력이라 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바로 이 런 인민을 믿고 조국력사에 일찌 기 없었던 변혁의 년대를 펼쳐나 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렇다.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자 신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 는 이 나라 인민의 뜨겁고도 열 렬한 애국심에 떠받들려 주체조선 의 승리와 영광의 력사는 영원할 것이며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 의 아들》은 이 나라 인민의 영원 한 인생의 주제가로 더 높이 울 려퍼질것이다.

장 혁 철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 해외동포는 3대를 이어가며 위 생시설수리공으로 일하는 녀성에 게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다.

《무슨 재미로 수십년동안 일을 합니까?》

《주민들의 생활상애로를 풀어 주는 재미에 합니다. 인민들이 좋 아하는것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답 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재미에 한 생 기꺼이 궂은일을 해온 그 녀 성, 인민들이 좋아하면 그것 이 곧 더없는 보람이고 행 복이라는 그의 인생판앞에서 해외동포는 머리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후날 그 해외동포는 자기 의 수기에서 이렇게 썼다.

《그도 녀성이였다. 그라 고 왜 다른 녀성들처럼 곱 게 차려입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으랴. 그러나 그는 일터는 마음에 따라 바꿀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량심으 로 영원히 지켜야 할 조국의 초소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가다듬군 하였다. 그 나날 최정순녀성은 어엿하게 자란 네 자식모두를 자기와 한초소에 세웠다. 그의 한생 은 이렇게 흘러갔다. 자기 일 터를 사랑하며 값높은 위훈 으로 빛내여가는 이런 애국 자들이 많아 고난과 시련이 겹쌓이고 그 아무리 풍파가 사납다 해도 공화국은 끄뗙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옳은 말이다.

오늘도 공화국에서는 자기 의 일터를 자기가 지켜선 조국이 라고 여기며 자기의 모든것을 묵 묵히 바쳐가는 이런 애국자들이 수없이 많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700여 명의 로력영웅이 배출되고 부강 조국건설사에 뚜렷한 삶의 자욱 을 새겨온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 자들이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값 높은 영예를 지니였다는 사실만 놓고도 공화국이야말로 애국자대 부대의 조국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비록 그들이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가사

어머니조국의 어깨우에 실리는 짐

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나라 를 위해 헌신하고있다.

[6]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그 렇게 한생을 묵묵히 자신의 모 든 힘과 열정을 깡그리 다 바치건 만 그들이 하는 말은 얼마나 소 박한것인가.

《고마운 어머니당에 일로밖에 는 보답할것이 없어서 땀을 바쳤

을뿐입니다.》 《전 나무처럼 살고싶었습니다. 나무는 죽어도 서서 죽고 잎새

는 떨어져도 뿌리를 덮어주 지 않습니까.》

애국자. 맑고 깨끗한 진정이 흘러넘 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다 시한번 불러보는 부름이다.

그러느라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영광의 최 절정에 세워주신 이 땅의 평 범한 근로자들, 조선로동당 이 국가의 초석으로, 대들 보로 귀중히 여기는 로력혁 신자, 공로자들의 모습이 떠 오른다.

바로 그들은 사랑하는 조 국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한줌 석타이 되여 날아들어도 좋 고 가없이 푸르른 농장벌의 어린 모 한포기 살찌우는 거 름이 되여도 좋다는 숭고한 일념을 안고 조국땅 방방곡 곡에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애국공민들이다.

애국자동네라고 사람들속 에서 정답게 불리우는 경루 동의 주인들인 과학자, 화 력발전소의 혁신자부부, 훈자동차운전사부부, 직포공, 도 로관리공, 동물사양관리공, 교원 등 각계층 근로자들도 그러한 참

된 인간들이다. 이러한 애국자들이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따라 세계를 놀래우 는 기적과 혁신으로 공화국을 천 하제일강국, 천하제일락원으로 일

떠세우고있다. 진정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는 애국적인민에 의 해 그토록 존엄높고 강하며 승리 와 기적만을 펼치는 공화국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지구상에는 경제적번영을 뽐내

는 나라들도 있고 억대의 재부를

자랑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렇듯 순결한 마음을 안고 그 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가.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는 소박 하고 평범한 녀성이다.

운것이 간직되여있었다.

그것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바쳐가려는

늘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

장과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 삼지연시건설장을 비롯하여 사회 주의대건설전역마다에 뜨거운 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사상을 받아안았을 때에도 그는 가정에서 저축했던 자

금으로 많은 식량을 마련하여 애

그리고 얼마전에는 평안남도간석

지건설종합기업소 안석간석지 피해

복구현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소

식을 접하고 피해복구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을 위해 자기의 뜨

그때 우리 3형제모두가 한날한

시에 새 교복을 타입은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나라에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

었구나.》라며 손등으로 흘러내

그날의 학생이였던 내가 오늘

은 아버지가 되여 새 교복을 입

은 아이들을 보게 되니 마음은

한껏 즐거움에 넘쳐 학교로 가

국미로 나라에 바치였다.

습을 보는것만 같았다.

리는 눈물을 닦았었다.

격정으로 뜨거워졌다.

소리가 들러왔다.

그에게도 돌보아야 할 남편과 자 식이 있다.

한가정의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정의 행복을 조국의 부강번영과 뗴여놓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이 가벼워진다는 오직 하나의 생 각을 안고 가식없이, 사심없이 그러나 그는 언제한번 자기 가 리상도 지혜도 목숨도 아낌없이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들, 대를

당의 목소리를 전하며 수십년

세월을 한모습으로 사는 우편통

신원, 누가 보건말건 국가가 맡겨

준 초소를 자기의 전호처럼 지켜

중계공들이며 구봉령일가, 용해공

가정, 신발수리공가정 그리고 나

라의 군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18살미만 미성년의 수가 6 000명

이상에 달하여 사상최고를 기록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3명의 학

생이 총탄에 맞아죽은것을 비롯

하여 올해 1월부터 8월사이에만

도 470건의 대규모총격사건이 발

생하여 수많은 나어린 꽃망울들

하였다고 한다.

가는 도로관리원, 수원지관리공,

하지만 우리 공화국에는 그 모 든것에 비할바없이 귀중한 재부중 이어 한길을 가는 애국자가정들 의 재부가 있다.

그것은 평범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순결한 마음으로 조국 을 굳건히 받들어가는 애국자들

열성자들…

이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가사 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조국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 몸 내대는 애국자들이야말로 우 리 공화국의 제일가는 재부이고

자랑중의 자랑이다. 이런 애국자들이 많고많아 공 화국은 그토록 강하고 그 미래가 끝없이 밝고 창창한것이 아니랴.

본사기자 홍범식

서는 총에 맞아죽거나 부상당한 없는 이런 암흑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명랑하고 씩씩하게 자

랄수 있겠는가. 낳아준 부모는 있어도 운명 지난 3월 미국의 테네시주에

을 지켜줄 품이 없어 애어린 나이에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 든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 하 는 철부지들의 애처로운 모습 을 볼 때마다 슬하의 자식들 을 비바람, 눈바람속에서 굳건 히 지켜주고 어려울수록 더 따 뜻이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우 리 공화국의 은덕이 가슴에 사 무쳐왔다.

누구에게나 돌보아주는 품 이 소중하다. 하지만 아이들에 게 있어서 그것은 앞날의 모든 것과 직결된 더없이 귀중한것으 로 된다.

하기에 나에게는 우리 아이 들이 차려입는 멋진 새 교복 이 단순한 교복으로만 여겨지 지 않았다.

이 세상 둘도 없는 따사로운 품에 안긴 이 나라 천만아이들 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 더없이 찬란할 내 조국의 밝은 미래로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담찬 발걸음소리를 크나큰 힘으로, 기쁨으로 여기시는 절세위인을 모시여 최악의 시련속에서도 불 행을 모르고 세상에 부럼없이 무 럭무럭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고 끝없이 밝고 창창한 조국의 미래가 있음을 확신하며 나는 출

김 주 경

는 새세대들의 모습을 대표적으 로 형상한 말이 있다. 새 교복과 방탄복!

이들의 불행한 모습을 상징하

내가 이에 대해 깊이 실감하게 된것은 며칠전 출근길에서였다.

수도의 어디서와 마찬가지로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의 지하철 도 개선역앞에는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로 붐비였다. 꼬리를 물 고 달려가는 무궤도전차며 아빠 트들마다에서 물결처럼 흘러나오 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 비낀 희열과 긍지…

회의 모습이 가슴벅차게 안겨오 이들이요.》 는 아침풍경이였다.

그중에서도 나의 눈길을 잡 아끈것은 어머니당의 은정이 깃 든 멋들어진 새 교복을 차려입 고 《소나무》 책가방을 달랑이 며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모습

활짝 피여난 꽃처럼 맵시있는 새 교복을 펼쳐입고 거리를 활 보하는 그들에게서 눈길을 뗴지 못하느라니 학창시절 국가로부터 받은 새 교복을 입고 좋아라 학 교로 달려가던 나의 어린시절 모

성을 기울여온 그였다.

애국의 길을 걷고있었다. 그러면 서도 더 바치지 못하는것을 두고 안타까와하고있었다. 이런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겠

는 누가 알아주건말건 변함없이

는가. 가사우에 국사를 놓는 애국자.

생각도 깊어진다.

자기들이 무거운 짐을 질수록 온갖 지성을 다해가는 원군미풍

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있

지만 온 나라의 아이들에게 새

형태의 교복을 안겨주는 나라 는 없다. 오직 후대들을 위한 사업이 국 가의 운명과 미래와 관련되는 중 대국사로 되고있는 우리 공화국

현실인것이다. 그 순간 불현듯 눈앞을 어지 럽히며 떠오르는 광경이 있었다. 새 교복을 입고 춤추듯 달려가 이 목숨을 잃었다.

에서만 펼쳐지고있는 꿈만 같은

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는 우리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걸핏하면 교정에 뛰여들어 총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끔찍 한 광경이였다. 대낮에도 길가에서 마구 울 리는 아츠러운 총소리, 가슴섬

실 책상밑에 엎드리거나 학교밖 으로 도망치는 공포에 질린 아

라 약육강식과 패륜패덕이 만연 하고 정신도덕적으로 부패타락하 여 총기류를 들고 서로 죽일내기 를 하는 미국사회에서 매일과 같

총기류범죄가 살판치는 미국에 린이들과 학생들이다.

탄을 란사함으로써 배움의 터전

총에 맞을가봐 교복이 아니라 방 탄복을 입고 학교로 가고 끝모르 이 펼쳐지는 아이들의 불행한 모 는 절망과 공포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겠는가.

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연약한 어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탄복이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미국에 세요!》라는 비명소리가 그칠새

이 피가 랑자한 죽음의 생지옥 으로 되고있는 살인왕국 미국의 현실을 두고 어느한 나라의 신 문은 《미국에서는 자식을 학 교에 보낼 때 살아서 돌아온다 는 담보가 없다. 미국은 부정의 가 정의를 누르고 살판치는 나 라이다. 살인이 란무하는 곳에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 서는 꿈을 이룰수 없다.》고 폭 로하였다.

때없이 들이닥치는 총기류범죄

안겨왔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학생들이



가. 명절날이면 대학의 교원들과 동무들이 저마다 혈육의 정을 그 리워하는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이끌었고 새 가정을 이룰 때에 는 모두가 펼쳐나 결혼식상은 물

론 가구와 생활용품까지 일식으 로 마련해주었다. 진정 공화국의 품은 나에 게 삶의 희열을 안겨주고 온 갖 꿈을 이룰수 있게 해준

> 행복의 요람이였다. 나는 어머니조국의 한없는 사랑과 은정에 보답할 일념 으로 가슴 불태우며 한계단 한계단 과학탐구의 탑을 쌓

아나갔다. 그 나날 나는 현실에서 절 박하게 요구하는 고강도구조 접착제를 만들것을 결심하고 달라붙었다. 하지만 결심이 곧 실천으로 되는것은 아니 였다.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실패는 거듭되였다. 그때마다 내가 걸어온 인 생길을 돌이켜보며 힘과 용 기를 가다듬군 하였다. 보답 의 열망은 지칠줄 모르는 정

열의 원천이였다. 연구소집단의 적극적인 협 조와 방조를 받으며 마침내 실천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고강도구조접착제연구에서

성공할수 있었다. 주체106(2017)년 5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나의 연구성과를 보고받 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

였다. 나는 너무도 크나큰 감격

에 오열을 터치고말았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 습니다!)

이렇듯 나는 공화국의 품에 안 겨 인간으로서, 과학자로서 영광 과 행복의 단상에 올라섰다.

공화국의 품에 안길 때 재산이 란 군용배낭 하나뿐이였던 내가 받아안은 인생의 재부 는 얼마나 크고 올라 선 인생의 높이는 또 얼마나 아득한것인가.

나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군 한다. 한없이 고마운 사회주 의 내 조국을 위해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지 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 쳐가겠다고.

동대원구역 동대원1동 박 봉 실

무릇 재부라고 할 때 값있는 모든 재산이나 물질적부를 의미

재부는 인간과 사회발전에서 필 수적인 가치를 가진다. 하다면 우리 공화국의 제일재 부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미덕과 미풍이 차넘치는 이 땅의 현실에서 찾을수 있다. 얼마전에 취재길에서 만났던 락 랑구역 승리1동 36인민반에 살고 있는 리영희녀성을 잊을수 없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뜨거

애국의 마음이였다.

하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 거운 진정을 바치였다. 판이한 두 사회제도에서 자라

전자가 후대들을 제일로 중 히 여기고 세상에 부럼없이 내 세우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 의 고마움을 상징하는 말이라 면 후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폭력과 범죄의 희생물이 되여 피기도 전에 스러져가는 어린

는 말이다.

이였다.

얼굴도 꽃처럼 환하였다. 이때 지나가던 나이지숙한 사람의 목

을 입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을 기쁨과 락판이 넘치는 우리 사 좀 보오. 얼마나 행복한 우리 아 행복한 아이들! 온 나라 방방곡곡의 거리와 마 이들… 을, 해빛밝은 교정 그 어디서나

흔히 보게 되는 새 교복을 차

려입은 아이들의 모습이건만 그

말을 들으며 어쩐지 생각이 깊

《참 좋은 아침이요. 새 교복

어졌다. 교복이란 말만 외워도 후대들 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물겹게 어려와 격정으로 가슴

적시는 우리 인민이다. 지구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

찍한 비명소리와 울음소리, 무 차별 날아오는 총탄을 피해 교

습이였다.

교복을 대신해야 하고 《살려주 근길을 다그쳤다.

어머니조국의 사랑은 지난 9월 6일 공화국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일본 도꾜

에서는 총련의 여러 예술단 체들과 각계층 동포들이 출 연하는 대공연 《우리의 기》가 진행되였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맥박치고 민족적정서가 차넘치는 공연무대에는 합 창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 워라》도 올랐다.

재일동포들이 세기를 이어. 세대를 이어가며 부르고 또 부르는 노래 《조국의 사랑 은 따사로워라》.

이 노래가 공화국창건 75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대 공연무대에서 다시 울리여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을 뜨겁 게 울리였다.

환희로운 공화국창건기념일 에 이역의 하늘가에 울려퍼 진 격정의 노래. 그것은 해가 갈수록 더욱 따뜻이 보살펴 주는 조국에 드리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고마 움의 인사, 그리움의 노래였 고 이 세상 끝까지 어머니조 국과 운명의 피줄을 굳게 잇 고 나아가려는 동포들의 굳 은 맹세의 분출이였다.

* *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평 양학생소년예술단이 일본에 서 공연할 때 있은 일이다. 공연종목이 바뀌여 한 나 어린 꼬마독창녀가수가 무대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줄은

에 나섰다.

꿈결에도 꿈결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교육원조비 장학금의 많고 많은 귀한 돈을

바다너머 저 멀리 조국에서 보내왔어요

무대우에서 또랑또랑 울리 던 독창가수의 목소리가 점 차 가늘어지더니 끝내는 흐 느낌으로 변하고말았다. 목이 메여 울고있는것은

사랑은 울리는 따사로워라》 《조국의 이어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손에 과일이며 사탕, 과자도

재일동포학생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이

성의껏 준비한 공연도 보아

주시며 종목이 바뀔 때마다

선참으로 크게 박수를 쳐주

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

연이 끝난 후에는 꽃바구니

를 전해주시고 무대에까지

오르시여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이들과

헤여지기 아쉽다고 하시며 동

포학생들을 또다시 만나주시고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손목

시계가 잘 가는가, 흠집이

없는가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동포학생들의 손에 꼭꼭 쥐

여주시면서 내가 동무들에게

주는 이 시계는 기념으로 차

고다니라고, 시계끈이 커서

아이들에게는 안맞을수도 있

는데 잘 보관하였다가 큰 다

음에 차도 된다고 다심하게

이르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크

나큰 사랑을 어찌 하늘의 높

이와 바다의 깊이에 비길수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조국

재일동포학생들은

있으랴.

하기에

시계까지 안겨주시였다.

쥐여주시였다

그만이 아니였다.

초만원을 이룬 극장의 여 기저기에서도 관중들이 터치 는 흐느낌소리가 울리고 공 연을 관람하는 재일동포들 의 얼굴에는 누구라 할것없 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 고있었다.

아 수령님의 높고 큰 이 사랑을

산이나 바다에 그 어이 비기랴

가수도 울고 관중도 울며 함께 부른 이 노래가 바로 재일동포들이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가요 《조국의 은 따사로워라》이다.

하다면 이 노래에 과연 어 떤 사연이 깃들어있기에 그 토록 해외동포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린것인가.

이 노래는 1950년대중엽 조국에서 교육원조비와 장학 금을 보내왔을 때 너무나 감 격하여 당시 한덕수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지은 노래이다

그때로 말하면 조국의 형 편이 극도로 어려웠던 시기 였다

전화의 재를 털고 사회주 의에로의 첫걸음을 내짚어야 했고 여기에다가 공화국의 전 진을 가로막으려는 안팎의 원 쑤들의 준동은 극도에 달하 고있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영 응조선의 기상을 다시한번 뗠칠 단호한 결심을 내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응대한 5개년인민경제계획을 내놓으시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토대를 닦으며 식의주문제의 기본적

그런데 조국에서는 이 방대 한 계획에 비하여 모든것이, 특히 자금이 엄청나게 부족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 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 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의무라고 하시면서 많

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하였다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단순히 돈이 아니였다. 그 것은 이역땅에 살고있는 재 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흘러 두 사랑의 생명수였으니 허 물어져가는 교실 아닌 교실 에서 백묵과 종이마저 부족 하여 애태우던 조선학교 교 원들과 돈이 없어 배움의 꿈 을 포기했던 동포학생들만 이 아닌 전체 재일동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감격의 눈물속에 목청껏 부르고 또 부른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였다. 꿈결에도 생각지 못했던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재일동포들의 감격 과 기쁨, 어머니조국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이 그대로 가사가 되고 곡이 되 여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 사로워라》가 세상에 태여나 게 되였던것이다.

돌이켜보면 일제식민지통 치시기 찬바람부는 이역땅에 끌려가 갖은 민족적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재일동포들이 부른 노래는 《아리랑》이나 《봉선화》와 같은 구슬픈 노래였다.

이런 그들에게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분 은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돌려 주신 수령님의 사랑은 참으 로 각별하시였다.

주체61(1972)년 8월 18일

조국래왕의 권리를 쟁취한 의 사랑으로 받아안고 조국 후 청소년들로서는 처음으로 을 방문할 때마다 그이를 우 조국을 방문한 도교조선증고 러러 다함없는 감사와 축원 급학교와 요꼬하마조선초급 의 인사를 삼가 드리군 하 학교 학생들에게 돌려주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은정 주체76(1987)년 재일조선인

학생소년예술단이 위대한 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사 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조 국학생들의 설맞이공연에 처 는것인가. 이날 재일조선학생소년들 음으로 참가하였을 때였다.

을 만나주시기 위해 평양학 자나깨나 달려가 안기고 생소년궁전에 나오신 위대한 싶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수령님께서는 인사도 변변히 뜻깊은 설맞이공연에 참가하 드리지 못한채 그이의 손목 게 된 재일조선인학생들은 자기들의 기쁨과 감격을 아 과 옷자락에 앞을 다투어 매 달러 감격에 울고웃는 동포 름다운 춤과 노래에 담아 펼 학생들을 품에 안아주시며 쳐보이였다.

> 설눈아 설눈아 포근한 설눈아 이역땅에 내릴 땐 차고

어

차더니 조국에서 맞으니 따스하구나 아 따스하구나

동포학생들의 공연을 주의 깊게 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고여올

몇번이나 안경을 벗으시고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으시는 그 모습을 우러르며 동포학 생들은 솟구치는 눈물을 억 제하지 못하였다.

이역의 새세대들이 참된 조선사람으로 자라나라고 민 족악기며 조국의 동식물, 광 석표본들을 가슴가득 안겨 주시고 재일동포학생들이 조 국을 방문할 때마다 꼭꼭 만나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 도 찍어주시며 사랑의 선물까 안겨주시던 어버이수령님 자애로운 영상을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재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이다.

조국의 사랑은 세월이 흐 를수록 더해만지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 가까이 다 가가는 어머니사랑이다.

1980년 10월 26일은 세계 해운력사에 《죽음의 날》로 기록되여있다.

그날 태평양서부수역을 휩쓴 무시무시한 태풍으로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1만t급이상의 선박들이 수십 척이나 침몰되고 태풍중심권 을 벗어난 조선반도 남쪽근 해에서만도 740여척의 배들 이 향방없이 종적을 감추었 으며 수많은 인명손실을 보

하지만 그 태풍을 뚫고 수 백여명의 재일동포청년들을 태운 《삼지연》호가 조국땅 에 무사히 입항하는 《신화》 가 창조되였다.

바로 그날 밤 일본을 떠 나 조국으로 달려오던 《삼 지연》호가 태풍을 만나 위험 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배를 구원하기 위한 전투를 몸소 지휘하시였다.

수많은 의사들과 구명기재 들을 실은 2만t급대형짐배와 해군함선들이 산같은 파도를 헤치며 태풍수역으로 달려가 고 《삼지연》호에서는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여 사나운 풍랑 으로 침몰의 위기에 처하였 던 《삼지연》호가 조국의 항 구에 무사히 입항하는 기적 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재일동 포학생들에게 돌려주신 사랑 과 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다.

하늘같은 그 사랑에 떠받 들려 어버이수령님 탄생 70돐 이 되던 해 봄 일본에 있 는 유치반어린이로부터 초급 학교학생에 이르는 동포자녀 모두에게 3뿌리씩 차례질수 있는 희귀한 산삼이 안겨지 고 조국방문을 마치고 일본 으로 돌아가는 재일조선학생 들을 위해 특별렬차가 달리 는 전설같은 이야기들도 태여 나게 되였다.

들으며

하나를 주시면 열을 주고 싶어하시고 열을 주시면 백 을 더 주고싶어하시는것이 재 일조선학생소년들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따스 한 사랑이였다.

어느해인가 자금이 긴장하 여 총련에 보내주기로 한 교 육원조비의 나머지 돈을 보 내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으 시고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족 교육사업은 총련에서 우리 혁명의 대를 잇기 위한 매 우 중대한 사업이라고, 금 덩이를 팔아서라도 꼭 해를 넘기지 말고 보내주어야 한 다고 간곡히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깃

든 사랑의 이야기는 민족최 대의 국상의 나날에도 이어 졌으니 어버이수령님께서 너무도 절통하게 우리결을 떠나신 5천년래의 대국상이 있은 그해 12월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총 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을 보내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제도와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고, 기간을 변경시키거나 그 량을 줄이지 말고 수령님께서 계실 때와 꼭같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르시였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 없이 어버이수령님과 꼭같 으신 마음으로 총련과 민족 교육을 생각하시고 새세대 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의 눈물을 억제할수 없었다.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 는 예산항목이 생겨난 때 로부터 어언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조국의 사랑은 오

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지난 주체112(2023)년 4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11돐을 맞으며 재일동포자녀들의 민 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2억 6 730만¥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 에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수 령 님 께 서 와 위 대 한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보내주신 교육원조비 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169차 에 걸쳐 일본돈으로 493억 9 787만 390¥에 달한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 에게 돌려주신 사랑의 력사 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 아래 오늘도 끝없이 흐르고 있는것이다.

어찌 이뿐이랴.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위 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제14차 전국교원대 회에 총련교육일군대표단을 불러주시고 대표단성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모신 붉은기를 배경으로 특별히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최상 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데도, 창립 65돐을 맞는 조 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시고 대학이 나 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데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 재일 조선인운동이 나아갈 진로 와 목표를 환히 밝혀주시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해외혁명동지,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혈육으로 불러주 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각별한 사랑 과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서한에서 총련은 사회 주의조국의 한 부분이며 재 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친형 제, 한집안식솔이라고 하시 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맡기고가신 총련과 재일동포 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것이며 재일 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 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잇 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 재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 와 같은 사랑과 믿음, 그것 은 곧 모든 해외동포들에 대 한 사랑과 믿음이다.

하기에 해외동포들은 진정 한 조국인 공화국과 한피줄 을 잇고 사는 우리들처럼 행 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 다고 소리높이 웨치고있는것 이다

해외동포들의 진정을 담 아 이역의 하늘가에 울려퍼 지는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대를 이어 절세위인들을 명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해 외동포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더없는 행복을 담아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 로워라》는 더욱 힘차게, 더 욱 뜨겁게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박철 남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의 2023년 새해설맞이공연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중에서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제 27 차 정기총회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 제27차 정기총회가 16일 일본 미에 현에서 진행되였다.

박구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 의장 겸 조직국장, 조일연부의장, 현 대식 경제국장, 최병호 재일본조선청 년상공회 회장을 비롯한 청상회 성 원들이 총회에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조국에서 보내여온 축 하인사록화편집물이 상영되였다. 최병호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 장의 개회사에 이어 송명남 중앙상 임간사회 간사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청상회가 민족교육지원 사업과 기층조직을 활성화하는 사업 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대해 언 급하였다.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청상회의 전반사업을 상승궤도에 올 려세워나가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민족교육을 비롯한 애족애국 운동을 선두에서 주도하는 조직으로 서의 청상회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총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이어 《청상회상쟁취운동》에 대한 표창사업이 있었다. 박구호제1부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서한에서 재일본조선청년상공 회를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후비 대오로 내세워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청상회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이룩한것은 서한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립증으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청상회의 활동을 떠나서 유 족한 동포사회, 흥하는 동포사회를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민족교육을 비롯한 애족애국운동을 선두에서 주도해나가며 각계각층 동 포들의 무궁한 힘을 하나로 모아 총 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하 였다.

총회에서는 재일본조선청년상공 회 회장으로 김민관이 새로 선출 되였다.

단합과 번명을 위한 길에서

작가 조령출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처음으로 만 나뵈온것은 주체38(1949)년 12월초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가 창 작한 가극 《꽃신》을 보아 주시고 작품이 아주 좋다고 하시며 앞으로 우리의 가극 을 이런 방향으로, 민족적정 취가 풍기도록 발전시키는것 이 좋겠다는 귀중한 가르치심 을 주시였다.

조령출은 민요화된 현대풍 가요를 창작하기 위해 고심어 린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민요곡조에 들끓는 사회주의현실의 사상 과 정서를 반영한 가사를 붙 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좋아 하시고 인민들이 즐겨 부르 는 많은 노래들을 만들어내 였다

그 대표작의 하나가 민요 《모란봉》이다. 이 민요는 혁명의 수도를 이 강산 좋 은 곳에 두고있는 공화국 인민의 자랑스러운 감정과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 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 하게 살며 일하는 인민들의 락천적인 생활정서, 민족적긍 지감을 훌륭히 표현하고있다. 조령출은 종래의 민요를 현

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빛내일 생각으로 해방전 한탄의 상징 으로 된 가사들을 새로운것 으로 창작하기도 하였다.

《황금산의 백도라지》(도 라지타령). 《법성포배노래》. 《양산도》 등이 다 그런 민 요들이다.

조령출의 창작활동은 문 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지도와 세심 한 보살피심속에서 더욱 활 짝 꽃퍼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가극혁명 의 나날 작가에게 온갖 사랑 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그가 인민의 기억속에 남는 훌륭 한 작가로 성장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대 한 장군님께서는 혁명 가극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 강산의 노래》, 《밝은 태양아래 에서》 등 수많은 가극창조사업에 조 령출을 내세워주시

스승이시였다.

였다. 조령출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절세위인들의

보답할 일념으로 위인송가창 작에 모든 정력을 바쳤다.

어느해 4월의 명절날 작가 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게 되였 다. 선물을 부여안고 온밤 잠 을 이루지 못한 그는 북받치 는 격정을 담아 가사 《만경 대의 노래》를 창작하였다.

음악의 천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이 가요 는 주체시대의 명곡으로 해 마다 4월의 봄명절이 오면 위인칭송의 노래로 되였다.

를 만나실 때마다 그의 건강

려주시며 왜 요사이 보이지 않았는가, 어데 아픈데는 없 는가. 조선생은 앓지 말아야 한다고 다정히 격려해주시였 다. 또한 그의 생일 일흔돐 상도 마련해주시였고 어느해 인가는 인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삼가 올린 산삼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은 지난날 설음 불리워지는 추억의 노래, 과 울분의 노래만을 터치던 《집없는 천사》의 생을 아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가 답게 꽃피워준 자양분이였다. 본사기자 라 국



재일동포들의《우리 민족연단 2023》 일본에서 진행

주최로 《우리 민족연단 2023》이 17일 일본 미에현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

장과 박구호제1부의장 겸 조직국 장, 조일연부의장, 현대식 경제국 장, 총련본부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김민관 재일본 조선청년상공회 회장, 김철규 미에 현 청상회 회장을 비롯한 각지 청 상회 성원들과 동포들이 여기에 참

가하였다. 쓰자! 우리 마음 하나로 모아》라는 주제로 진행되였다.

행사에서는 조국에서 보내여온 축 회장이 발언하였다. 하공연편집물과 애국선대들이 개척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의 하고 발전시켜온 민족교육과 애족애 국운동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 도록 적극 고무추동한 청상회의 활 동에 대한 록화편집물이 상영되였 으며 예술공연이 있었다.

이어 지난 1년간 청상회가 미 에현본부관하 모든 단체 일군들, 성원들과 각계각층 동포들의 무궁 한 힘을 불러일으켜 미에현조직과 동포사회를 재건, 활성화하며 민 족교육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 업과정에 얻은 성과와 경험들을 행사는 《이어가자! 미에, 용을 소개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토론회

가 진행되였다. 행사에서는 김철규 미에현 청상회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각계각층 동포들의 무궁한 힘을 하나로 모아 애족애국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승 하여 동포사회와 우리 학교를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동포사회의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모두가 단결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 짚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허종만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민족연단은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동포사회 에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고 하 면서 앞으로도 청상회의 기개, 동포 사회의 참모습을 자랑스럽게 펼쳐나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전 5H 반도 전 4 쟀 역 질 O

3일간 조선동해상에서 미국과 대잔수한정과 해상사격 해상 공방전과 전자전훈련 등 대규 모련합해상훈련을 벌리였다.

는 미제침략군 2사단과 함께 《적》 특수부대를 추격 및 격 멸하는 련합해상사격훈련도 강행하였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 집을 터치기 위한 또 하나의 닐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윤석열역 적패당은 권력을 차지하기 바 압살하기 위한 전쟁도발책동 에 미쳐날뛰여왔다.

올해에만도 역적패당은 2월

란적으로 벌렸다. 특히 지난 8월하순에는 미국과 력대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후력을 강행하였다.

이 전쟁연습에 오스트랄리 아, 카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딸리아, 뉴질랜드, 서 실전적인 북침전쟁연습이

특히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는 을 겨냥한 런합공격편대군훈

현실은 유석열역적패당이야 말로 지상과 공중은 물론 조 쟁장비집결수역, 가장 불안정 한 핵전쟁위험수역으로 전락 시킨 주범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위 협》과 《도발》에 대해 운운 하며 저들의 전쟁소동을 합 리화하고있지만 평화의 파괴 자, 전쟁미치광이로서의 저들 의 추악하 정체를 격귀 가리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 죽기마련이다.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 르고 미국을 하내비처럼 믿 고 북침전쟁소동에 미쳐날뛰 의 신세를 면치 못하리라는

높아가는 분노의

얼마전 《평택평화시민 행동》과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 국민련대》를 비 롯한 괴뢰 8개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군기지 활동가들 과의 좌담회》가 개최되였다.

시민단체들은 《좌담회》 에서 시민들의 생존권과 안 전권, 자유권과 환경권을 비 롯한 기본권리를 무참히 유 린말살하고있는 미군기지와 미제침략군의 범죄적만행들 을 자료적으로 폭로하면서 미군철수를 위한 《전국미군 기지대책위원회》를 내올것

조선반도에 핵참화를 몰아 오는 장본인이며 모든 불행 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 군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으 려는 민심의 반영이다.

을 발기하였다.

돌이켜보면 미제침략군이 리정남 괴뢰지역에 기여든 때로부 터 78년, 예속적이며 침략 적인 《한미호상방위조약》 이 조작된지 70년이란 세월 이 흘렀다.

이 나날 미제침략군은 우

리 조국강토를 둘로 갈라놓고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들씌웠다. 또한 괴뢰 지역을 반공화국압살과 세계 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세계최 대의 핵전초기지, 핵화약교로 전변시키였으며 《포커스 렌 즈》, 《을지 포커스 렌즈》 《울지 프리덤 가디언》 《포커스 레티너》,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 《프리 덤 쉴드》 등 각이한 간판 달고 북침전쟁연습을 그

항시적인 핵전쟁위험을 조성 하였다. 미제침략군은 몸서리치는

칠새없이 광란적으로 벌리며

반인륜적범죄행위들도 매일 같이 감행하였다. 군산소녀총격사건과 인천

송유관어린이사살사건. 의 정부녀인뼁끼칠사건, 동두천 녀인삭발사건, 고엽제살포사 건, 윤금이살해사건, 두 녀 중학생살해사건 등 미제침략 군이 저지른 만행은 그 잔인 성과 야수성에 있어서 류례 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 의 범죄행위들이다.

미제침략군은 무고한 인민 들을 살륙하는것을 도락으 로 삼았을뿐 아니라 괴뢰지 역의 도처에 군사기지를 만 들어놓고 유독성물질을 마 구 내버려 강토를 황폐화시 켰으며 살아있는 탄저균, 지 카비루스를 비롯한 생화학무 기들까지 끌어들이며 생화학 실험과 생화학전훈련들을 벌 려왔다.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과 범

죄를 저지르고도 미제침략군 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언제한번 문제시된적이 없으 며 오히려 치외법권적존재로 행세하면서 날이 갈수록 더 욱 오만무례하게 날뛰고있다. 하기에 괴뢰지역의 각계층 은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 은 있어도 미군범죄가 없는

날은 없다.》고 하면서 미군 철수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는것이다. 이번 《미군기지 활동가 들과의 좌담회》에서도 시민 사회단체들은 불평등하고 치

나갈것을 결의해나섰다.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날로 더욱 고조되는 이 반 미투쟁열기는 그 무엇으로써 도 억누를수 없다.

욕적인 《한미행정협정》을

철페하고 미군철수를 위한

투쟁을 더욱 광범히 전개해

정은혁







조탄압책동 등 반인민적정책 의 실정은 윤석열(정부)의

시행령개정안》을 반대하여 는게 없다.》, 《정책을 만들





일본이 오래전부터 조선을

것은 잘 알려져있다.

정치적고민거리에 직면하여 전전궁궁하고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야당에 대한 광란적인 탄압소동이 오히려 《국정운영》의 장애물로 작 용하기때문이라고 한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9월 21일 괴뢰국회에서는 《국민 의 힘》 것들이 제안한 《더불 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 포동의안이 통과되였으며 이 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불 어민주당》 원내지도부까지 사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로 하여 《국회》 본회 의가 열리지 못한것은 물론 거기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던 《대법원》 원장후보자임명 동의안채택이 무산되고 여 당패거리들이 추진해온 각 종 민생법안들의 표결도 미 루어지는 등 《국회》마비상 태가 조성되였다. 《더불어민 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법원》에서 기각되였다고 하지만 윤석열역도가 추천한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 무회와 각종 법안을 둘러싸 여야당사이의 충돌과 대립이

왔다, 윤석열이 장관후보자 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 여론의 비판이 더 거세 질것이라고 평하고있다.

괴뢰국회의원선거를 겨냥한

지지률제고놀유도 제대로 되

고 한다.

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있다

괴뢰여론조사기관들에 의

하면 유석열역도에 대한 부

정평가률은 날로 높아가고

《국민의 힘》지지률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률보

다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한

다. 이와 관련하여 괴뢰언론,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선거

까지 200일정도밖에 남지 않

주도하려면 《대통령》의 지 지률이 높아야 하지만 그렇 지 못한것이 문제이다, 여당 이 주도권을 쥘 방법은 거의 없다고 떠들고있다

이러한 속에 더욱 확대되 도는 더욱 커다란 위구와 불 안감에 빠져있다. 최근 역적

패당의 언론장악소동과 후

꾸시마핵오염수방류문제, 로

에 항거하여 《전국어민회총

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이 련일 기자회견과

초불집회, 규탄대회를 개최

하고 역도의 퇴진을 요구하

는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

여기에 역적패당이 다음달

부터 시행하려는 《소득세법

고있다.

울리는

을 비롯한 로동계가 11월에 윤석열퇴진을 위한 대규모적 인 민중총궐기대회와 로동자 대회를 벌리겠다고 예고해나 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있다. 이 모든것은 역도의 무지 무능과 독재통치가 낯은 핔

《지금까지 국정운영에서

〈총체적무능〉에서 비롯됐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무

능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수

없다.》. 《정책을 추진하고

일을 도모하는 방식이 너무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

1년여동안 부산하고 시끄럽기

만 했지 뭐 하나 손에 잡히

대에게 요구할수 있는 문제

아마츄어적이다.

무가 아니라 야당과 가열차게 싸우는게 본업이 됐다. 처음 에는 전 〈정부〉 와 야당을 겨 누더니 로조, 시민단체로 전 선을 넓히고 이제는 무차별적 으로 대립각을 세우고있다.》 이것이 윤석열역도와 그 패 거리들에 대한 민심의 총평

적패당은 집권후 군사파쑈

독재자들도 무색케 할 검찰

파쑈통치로 인권과 민주주의

를 여지없이 짓밟았다. 역적

패당이 《자유》와 《공정》.

《상식》의 간판을 들고 감

행한 전 《정권》관계자들에

대한 정치보복과 언론장악책

동, 정의와 진리,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각계층에 대

한 무차별적이고 무지막지한

탄압으로 사회적갈등과 대립

하였다. 특히 역적패당은 친 미친일사대매국책동과 반공 이며 단죄이다. 화국전쟁대결책동으로 민족 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깡 그리 섬겨바쳤으며 조선반도

몰아갔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망동은 민심의 커다란 분노와 항거 를 불러일으켰고 이것은 그 대로 역적패당을 막다른 궁

은 극도로 격화되고 괴뢰지

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암흑

세상으로 더욱더 철저히 전락

되였다. 또한 역적패당의 특

권층위주의 정치, 친재벌정치

지게 되였다. 민심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 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비

각계층의 저주와 규탄, 배 격의 대상으로 된 윤석열역적 패당의 말로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경 지금으로부터 140여년전에 제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 일어난 《운양》 호사건도 섬 나라것들이 조선침략의 구 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 적으로 감행한 무장도발사건 이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의 정세를 핵전쟁국면으로 침략책동은 1870년대중 엽에 들어서면서 로골적 인 무장도발단계에로 넘 어갔다. 당시 일본침략 자들은 미국의 적극적

인 지지와 비호밑에 조 선에 불평등적인 《조 약》을 강요하기 위해 조선연해에 《운양》호 를 침입시켰다. 일본반 동정부의 지시에 따라

참한 파멸밖에 없다.

본사기자 주광일

끌고 부산-원산사이의 조선동남해안일대에서 무차별적인 함포사격과 비법적인 정탐행위를 감 행하였다. 조선침략을 실현하기

《운양》호 함장 이노

우에 요시까는 1875년

5월부터 3척의 군함을

위해 좀더 《적극성》을 내라는 일본반동정부의 추궁을 받은 이노우에 는 1875년 9월 12일(음 력 8월 13일) 또다시 침 략선 《운양》호를 끌고 강화도앞바다에 기여들

일본침략자들은 《청 국우장까지 가는 항로 를 측정》한다고 하면서 방향이 다른 강화도근 처에 불법침입하였으며 《음료수를 찾는다.》는 구실을 붙여 9월 20일 (음력 8월 21일)에는 조 선의 군사요충지인 초지 진포대를 점령하려고 달 려들었다. 당시 강화도 는 한성(서울)의 주요관

문, 군사요충지로서 조선봉건 정부의 승인없이는 마음대로 접근할수 없는 곳이였다. 초지진포대를 지키고있던

수비병들이 자위적사격을 가 하자 함장 이노우에는 기다 렸다는듯이 이른바 《보복사 격》을 감행하였다. 일본침략 자들의 행위에 격분한 수비 병들은 《침략자의 검은 배 를 물리치자!》고 웨치면서 맹렬한 포사격으로 침략자들

을 초지진에서 몰아내고야말

조선수비병들의 강력한 자 침략자들은 9월 21일과 22일 에는 방위력이 약한 항산도 대록 상류시켜 무고하 이미 들에 대한 살인과 략탈, 파 괴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일본침략자들 이 조작한 《운양》 호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본침략자들은 《군함의 급수방해》니, 《일본국 기모욕》이니 하고 트집 을 걸면서 그 《문죄》 를 구실로 1876년 2월 에 대규모적무력침공을 감행하여 조선봉건정부 에 침략적인 《강화도조 약》을 강요하였다.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강화도조약》으로 일 본침략자들은 조선의 항구개항권, 령사주둔 권, 치외법권, 자유무역 권, 연해측정권, 난파선 기항권, 보충조약체결권 등 침략적인 특권들을 행사하게 되였다. 그후 20세기초에는 끝끝내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 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40여년간이나 악 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조선민족은 헤 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 통을 강요당하였으며 그 것은 오늘도 아물지 않

킨 《운양》 호사건이 있 은 때로부터 많은 세월 이 흘렀다.

하지만 일본은 피로 얼룩진 침략의 력사를 외곡하는 한편 미국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군

을 빈번히 벌려놓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조선에 대

김 장호

아직

땃 에 서

《독립전쟁은

않았다!》, 《우리가 독립군 이다.》, 이것은 지난 세기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그대로 감수할수 없어 침략자 일제 에게 항거해나섰던 독립운동 자들의 웨침이 아니다.

굴종의

괴뢰지역에서 런일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윤석열퇴진투쟁 에 떨쳐나선 각계층의 웨침

하다면 이들은 어찌하여 자신들을 《독립군》이라 부 르며 투쟁에 떨쳐나섰는가. 《윤석열은 뼈속까지 왜놈

이다.》 이것이 반윤석열투쟁에 뗠 쳐나선 민심의 주장이다.

윤석열역도가 섬나라족속 들까지 혀를 찰 가장 추악 의 독립정신과 다르지 않 한 친일역적이기에 서울을 비

롯한 괴뢰지역 도처에서 각 계층이 스스로를 《독립군》 으로, 윤석열역도에게 준엄 한 심판을 내리기 위한 투 쟁을 《독립전쟁》이라고 부 르며 반윤석열투쟁에 펼쳐나 선것이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역도는 괴뢰대통령선거에 나설 때 벌써 유사시 일본《자위대》 의 조선반도진입을 허용할수 있다는 망발을 거리낌없이 내 뱉으며 친일역적의 본색을 여 지없이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에는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침략 자에서 《협력동반자》로 되 였다느니, 대일관계를 개선 하겠다는 주장이 104년전 는다느니 하는 황당무계한

궤변들을 늘어놓아 뼈속까 지 차있는 제놈의 친일사대 매국적기질을 세인에게 보여 주었다.

어디 그뿐인가. 섞나라에 찾아가 《가장 가까운 이 웃》이니, 《가치의 공유》이 니 하고 일본을 극구 추어올 리면서 《다방면적인 협력관 계의 구축》을 구걸하는 추 태를 부리였고 일본수상 기 시다가 괴뢰지역에 왔을 때 에는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 되지 않으면 미래협력을 위 해 한발자국도 내디딜수 없 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 다는 쓸개빠진 망발을 거리 낌없이 내뱉아 내외를 경악케 했다. 나중에는 일본의 과거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문 제를 놓고 《어느 일방이 상

가 아니》라는 망발까지 마 구 줴쳤다. 지어 섬나라것들의 반인륜

적범죄행위인 후꾸시마원자 력발전소의 핵오염수방출까 지 안전성이 보장되였다는 나 발을 불어대며 극구 비호두 둔해나섰다. 하기에 지금 괴뢰지역의

각계층이 윤석열이 도대체 어디의 《대통령》인가, 일 본에 굴종하는 윤석열은 리 완용보다 더한 력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만 맞는 윤 석열의 깡통외교, 예속외교, 왕복외교를 민중은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윤석열이 처리수 다, 윤석열은 그자체가 백해 무익한 핵오염수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독립전쟁은 끝날수 없다, 일 본총독 윤석열을 처단하자고 웨치며 반윤석열투쟁에 떨쳐 나서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극악한 파쑈광의 감놀음 보조금삭

상진흥원》에 대한 보조금지출 을 절반이나 삭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언론들과 각계층 은 지난해 7월 《만화영상진흥 원》이 《전국학생만화전시회》 에 출품된 어느한 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를 최우수작 품으로 평가하고 금상을 수상 한데 대한 《괘씸죄》이고 그 에 따른 보복성삭감이라고 평 하면서 윤석열역도의 치졸한 심보가 다시한번 그대로 드러

최근 윤석열역도가 《만화영

한 평가라고 할수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아이들 의 눈동자와 마음은 사진기, 인쇄기와 같아 보고 듣고 느 낀것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표현한다.

났다고 하고있다. 비교적 정확

만화 《윤석열차》는 아이 들의 눈으로 본 괴뢰지역의 현실이고 동심에 그대로 비 낀 사회상이다. 윤석열역도의 독선과 전횡, 검찰독재통치에 의해 민주주의와 인권은 여지 없이 짓밟히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있는 실상을 그 대로 화폭에 담은것이 만화

《윤석열차》이다. 하기에 《전국학생만화전시 회》를 주최한 《만화영상진

흥원》도 출품된 만화 《윤석 열차》를 최우수작품으로 평 가하고 금상을 수상한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역도와 그 패 당은 만화 《윤석열차》를 출 품한 학생의 부모와 교원이

《종북세력》이기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왔다고 고아대면서 만화를 그린 학생과 그의 부 모, 관계자들을 박해하다 못 해 이번에는 《만화영상진흥 원》에 대한 보조금삭감놀음 까지 벌리였다. 그야말로 민심 도, 여론도 안중에 없는 극악 무도한 파쑈광, 희세의 파렴치 한들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역도가 떠드는 《자유》이고 《공

정》이다. 정의와 진리를 여지없이 짓 밟는 역적패당의 반인민적통 치가 얼마나 역겹고 중오스 러웠으면 고등학교학생들까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나왔다.》고 하면서 각계층의 반윤석열투

쟁에 합세해나서고있겠는가. 민심은 물론 아이들마저 침을 뱉고있는 윤석열역적패 당의 앞날이 어떠하리라는것 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본사기자 김 정 혁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 았다.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고 악랄하게 책동하여왔다는

|

0

三

침

0

린

디

건의 진상이다. 0 호

하였다.

는 상처로 남아있다. 일본침략자들이 일으

비중강과 《전쟁가능한 나 라》로 변신하기 위한 헌법개 정놀음에 광분하고있다. 최 근에는 상전과 함께 조선반 도주변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명목의 침략전쟁연습들

한 일본의 침략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